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고 선 강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직장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참여에 관한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희경

직장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참여에 관한 연구

고 선 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희 경

認 准 書

김희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던 가사노동은 이제 남녀가 함께 해야 하는 이로 대두되고 있으며, 남성의 가사노동의 참여가 요구와 참여증대를 위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정도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대 이상의 직장 남성과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서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 시간 및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은 어떠하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간의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은 어떠하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사용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정도에 대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일원분산분석,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정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이상 직장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34.05분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관리 영역은 22.73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약 11.32분이었다. 가정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이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영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사별 또는 이혼한, 미취학자녀가 없고, 소득이 작을수록,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인 남성인 경우 참여시간이 길었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30대 남성의 참여가 가장 컸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자녀가 있으며, 소득이 높고, 사무종사자이며, 임금, 봉급 근로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었다.

둘째,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관리 영역은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직업, 직장지위, 성별분업 인식, 주업일한시간이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미취학자녀유무, 성별분업 인식, 주업일한시간이다.

셋째,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34.78분, 비맞벌이 남성은 34.22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 22.48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12.30분의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비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 17.43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16.79분의 참여시간을 보였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 중 청소 및 정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 중 미취학자녀 보살피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비맞벌이 남성이 가장 높은 참여시간 보인 영역은 가정관리 영역 중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이며, 가족보살피기 영역 중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이었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서 20대와 50대의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은 남성이,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며, 무급가족종사자이며,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2,30대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취학 자녀가 있고, 고소득의 남성이,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며,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었다. 비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서 20대이며,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이며,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2,30대이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취학자녀가 있고, 고소득인 남성이, 사무종사자이며, 임금, 봉급근로자이고,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일수록 참여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넷째,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직업,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 성별분업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유무, 직업,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다.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소득, 직업,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미취학자녀 유무,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가사노동의 개념	5
2. 가사노동의 분류	6
3.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가설	10
1) 성역할관념 가설	11
2) 상대적 자원가설	12
4.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13
1)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	13
2)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영역	16
5.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
1) 연령	19
2) 교육수준	20
3) 미취학자녀 존재	21
4) 소득	22
5) 직장노동과 직업지위	22
6) 직업노동시간	23
7)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	24

8) 부인의 취업여부	26
Ⅲ. 연구방법	28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28
1) 연구모형	28
2) 연구문제	30
2. 분석자료 및 연구표본	30
1) 분석자료	30
2) 연구표본	34
3. 자료 분석방법	35
Ⅳ. 연구결과 1	36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일반적 특성	36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6
2) 연구대상자의 가사노동시간	38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영역	40
1)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40
2)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45
3)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49
4)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53
5)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57
6)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61

7)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66
8) 성역할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70
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2

V. 연구결과 2

1.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일반적 특성	78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78
2) 연구대상자의 가사노동시간	81
2.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영역	83
1)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84
2)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86
3)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88
4)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89
5)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90
6)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92
7) 성역할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94
3.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6
1)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6
2)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VI. 결론 및 제언 10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1> 가사노동 영역의 분류	8
<표2> 가사노동의 내용	32
<표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일반적 특성	37
<표4>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활용 형태	39
<표5-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41
<표5-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43
<표5-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44
<표6-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46
<표6-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47
<표6-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49
<표7-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50
<표7-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52
<표7-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53

<표8-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54
<표8-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55
<표8-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56
<표9-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58
<표9-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60
<표9-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61
<표10-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62
<표10-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64
<표10-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65
<표11-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67
<표11-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68
<표11-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69
<표12-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역할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70
<표12-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역할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71
<표12-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역할분업 인식에 따른 가족보살피 기 세부사항	72
<표1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76
<표14>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일반적 특성	79
<표15>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활용 형태	82
<표16>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83
<표17>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85
<표18>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 피기	87
<표19>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88
<표20>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90
<표21>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92
<표22>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 피기	94
<표23>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성역할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96
<표24>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8
<표25>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2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 1	28
[그림 2] 연구모형 2	29

부록목차

<부록1> 200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부록2> 2004년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I. 서론

1. 문제 제기

양성평등 사회로의 진입과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전업주부 남성의 증가이다. 2007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남자는 모두 15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육아활동을 하는 남자는 5,000명, 가사활동을 하는 남자는 14만 6,000명이었다. 이는 3년 동안 42.5% 증가한 것으로 2003년에는 육아 3,000명, 가사 10만3,000명 등 모두 10만6,000명의 남자가 집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 일을 맡았다. 반면, 2006년 육아·가사활동을 전업으로 한 여성은 662만2000명(육아 150만4000명·가사 511만8000명)으로 2003년 655만2000명(육아 149만9000명, 가사 505만3000명)에 비해 1.1% 증가에 그쳤다(통계청, 2007).

남성 전업주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변화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를 잃거나 펜잡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남성 전업주부들에 대한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일명 ‘트로피 남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트로피 남편’이란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지에서 만든 신조어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아내를 대신해서 과감히 일을 던져 버리고 ‘주부’ 역할을 자칭한 남성들을 말한다(동아일보, 2004년 2월 26일자).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가사노동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사노동은 가정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조하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림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는 95%를 상회하는데 비해 남성들의 참여정도는 쓰레기 수거와 시장보기를 제외한 영역에서 30%미만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도는 개인적,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참여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혼남성은 미혼남성에 비해 식사준비, 설거지, 세탁 등의 가사일에 더 적게 참여하는 반면,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등은 미혼남성에 비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5).

현재 우리 사회는 남성 가사노동 전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과도기적 사회이다. 이러한 시점에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들의 늘어난 자기재량 시간을 가사노동 참여를 위한 시간으로 유도하여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구성원의 가정생활 만족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남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로 늘어난 자기재량시간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장노동 중심의 생활을 시장노동 이외의 시간, 즉, 가사노동과 여가시간 중심의 생활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윤소영, 2007).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실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사노동 참여,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 남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이영미, 1992),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신소영, 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연구(조미환·이기영, 1997),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와 가정생활 만족도(조미환, 1998), 2000년대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송혜림, 2000),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채옥희, 2002),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채로, 2004)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비교대상으로 20-30대의 남성을 연구하거나, 그중에서도 맞벌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전체적인 가사노동 참여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을 분석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가사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여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며,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도 여성과 비교하며 이루어졌으며 남성 집단 안에서 가사노동 수행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더불어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현대사회의 가정은 양성평등 사회로의 진입, 가족형태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요구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분석함으로써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2004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의 하루 24시간의 시간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 이상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영역별 시간사용을 분석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둘째,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간의 가사노동 시간 및 참여영역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간의 가사노동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연구한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의 개념

가사노동은 사적인 가정생활의 장에서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에는 음식 만들기, 식사준비, 옷 손질, 가족원 돌보기, 시장보기 및 가정관리 등이 포함되는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개념이 정의되고 분류된다.

초기에는 가사노동을 "주부 자신의 가계유지(housekeeping)와 관리(management), 그 가족원들을 돌보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며,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간주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구도 주부에게 한정하였다. 1930년대에 리드(M.Reid)는 가사노동을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으로 정의하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활동을 가사노동으로 보았다. 한편 워커와 우즈(Walker & Woods)는 가계생산과 가사노동을 동일시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기 위해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의도적인 활동을 가사노동으로 정의하였다(이기영·김외숙, 2002).

문숙재(1990)는 가정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동을 가정노동, 혹은 가정생산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가정생산이란 가족원 각자 및 공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가정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금영(1992)은 가정의 모든 물질·인적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원 모두의 욕구충족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활동을 말한다고 하였다. 채옥희(2004)는 가사노동이란 가족의 기능 유지를 하계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

산하기 위하여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의도적인 행동들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한 가족원들의 노동이라고 하였다.

가사노동이 가진 대체특성에 관해 Beutler와 Owen(1980; 이구희, 1990에서 재인용)은 가정생산을 두 분류로 나누어서 대체가능한 것과 대체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가계생산의 대체는 시장의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통해서 가능하며, 반면에 대체불가능한 것으로는 가계내 생산(Intrahousehold Production), 가계간의 교류(Intrahousehold Grant), 지역사회봉사(Community Service)등을 들면서 이런 활동이 가족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정한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기영과 김외숙(2002)은 가사노동이 시장노동과의 상호대체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가사노동에 의해 재생산되는 노동력이 사회적 노동력의 원천 공급으로 사회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의 가사노동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으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가족원들의 노동이라고 보았다.

2. 가사노동의 분류

가사노동은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족원의 노동력을 통해 재생산하는 활동으로 가정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이다. 가사노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을 의생활관리,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가정경영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초기 가사노동 연구자들이 가사노동을 의·식·주, 가족생활·가정관리 등과 같은 수행기능에 따라 분류했던 것에 근거한다(표 1 참조).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의 분류를 살펴보면 김외숙(1981)의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기능적 측면의 분류를 세분화하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탁, 다림질 및 의류손질, 주택과 정원 손질, 가족돌보기와 장보기, 관리, 기록의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문숙재(1991)의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의 관한 연구에서 본 가사노동 영역에서는 음식 만들기,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탁, 다림질 및 옷 수선, 집안 청소, 주택손질 및 수리, 자녀 돌봐주기, 경영, 시장보기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조미환과 임정빈(1997)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식생활관련, 의생활관련, 주생활관련, 구매, 관리, 자녀양육, 일반가사 과제(자녀양육제외)의 7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채로(2003)의 맞벌이부부 가사노동 시간수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식사 만들기, 설거지, 세탁정리, 수선, 청소, 정원정리, 자녀신체적 돌보기, 자녀 학습지도, 남편 부모 관련일, 시장보기, 가계부 정리의 영역과 이를 통합한 5개의 분야인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족원돌보기, 구매·가정관리로 구분하였다.

2004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사노동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눈 후 다시 세분화시켰다.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로 나눈 후, 가정관리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로, 가족 보살피기는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로 나누었다. 이기영 외 8인

(2006)은 농가가족원의 생활시간 분석에서 가사노동 영역을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아이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기타 가사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마다 가사노동을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나, 전통적 가사노동연구에서 시작한 가사노동의 기능에 따른 5가지 영역에 근거하고 있음은 공통적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2004)의 가사노동 영역분류를 근거로 연구하고자 한다.

<표1> 가사노동 영역의 분류

	식생활 관리	의생활 관리	주생활 관리	가족관리	경영	기타
김의숙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 식사준비 •특별음식 준비 •설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탁 •다림질 •특별의류 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 주택손질 •특별주택 손질 •정원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가족돌보기 •비신체적 가족돌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보기 •관리 •기록 	
문숙재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만들기 •식사준비 및 설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탁 •다림질 및 옷 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안청소 •주택손질 및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돌봐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시장보기 	
조미환· 임정빈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준비·상차리기·도시락 준비 •설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탁·빨래정리 •다림질·옷 손질 및 수선 •이불 켜기·개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 및 걸레질, 욕실·베란다·현관뜰 청소 •간단한 집안수리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 (신체적 돌보기) •숙제 봐주기·이야기나누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의 일상적 문제와 경제문제 •계획·관리·의논·수행 •일상적 시장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가사 과제 (자녀 양육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초 가꾸기 자동차세차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그리기등 •등·하교 시켜주기 •놀이터에서 놀기·야외 나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쇼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로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 만들기 •설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탁정리 •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 •정원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신체적 돌보기 •자녀학습지도 •남편부모 관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보기 •가계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준비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외 가족 보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 •집 관리 •기타 가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기영 외 8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준비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 보살피기 •그외 가족 보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가사일

3.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가설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대표적인 가설로는 성역할관념 가설, 상대적 자원가설, 시간가용성 가설, 가사선호 가설, 요구반응성 가설 등이 있다. 성역할관념 가설은 성에 따른 인식과 사고가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남성이 평등주의적 관념을 가질수록 가사에 많이 참여한다는 가설이다. 상대적 자원가설은 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가정내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며, 가사노동에 더 적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시간가용성가설은 배우자간에 상대적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가사에 더 많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시장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남성에 비하여 가정에서 소비시간이 많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부가 취업을 하거나 근로시간이 긴 배우자는 가사노동에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노동에서의 소비시간이 많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가사와 자녀양육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한다. 가사선호 가설은 가사에 대한 남편이나 부인의 선호와 관계되어 가사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남편들 중에도 가사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 부인이 더 선호한다(이기영·김외숙, 2002).

요구·반응성 가설은 부인의 취업여부, 직업노동시간의 제약 정도 및 자녀와 관련된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가사노동 시간이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Blood & Wolfe, 1960; Condran & Bode, 1982; Kamo, 1988; Blair & Lichter, 1991; 조미환·임정빈, 1997에서 재인용). 경제적 효율가설은 신가정경제학과의 기본적 이론에서 발전되어온 것으로 기본적 전제는 어떠한 일의 시간은 소비로 인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할애된다고

가정하고(Becker, 1965,1974)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시간분배는 가족전체의 최고 효용을 얻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효율성 또는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Farkas, 1976; 허경옥, 199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가사분담 참여와 가족원 보살피기에 대한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다양한 가설 중에서 성역할관념 가설, 상대적 자원가설에 근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성역할관념 가설

성역할관념 가설은 개인의 사고나 가치관에 관한 부분을 중시하여, 개인이 원래 가지고 타고난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가설이다(조성은, 1998). 특히 성별에 따른 역할, 부모역할, 부인의 취업,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등에 대한 관념 및 가치관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허경옥, 1994; 권혜연, 1996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은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책임지고 여자는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키우는 성역할이 완전하게 분업된 상태를 보다 더 이상적인 가족이며,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한다. 이것을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라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용어는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이다. 남성과 여성, 남편과 부인의 노동 영역에서의 서로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남편과 부인의 평등한 가사노동수행을 보다 더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 평등주의적 성역할관념이다(신소영, 1996).

즉, 사회적으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사고관을 가진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으로 평등주의적인 성역할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보다 더 평등하게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배우자 중 한명 또는 둘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을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된다(Hiller 1984; Blair & Lichter, 1991; 최수선, 1995; 조성은, 1998에서 재인용).

2) 상대적 자원가설

상대적 자원가설은 부부간의 의사결정 시에 부부 각각의 물질적 자원에 대한 비교로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배우자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력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넓게는 가족의 노동 분담의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권혜연, 1996). 상대적 자원가설은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사회경제적 혹은 물질적으로 자원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가사노동 분담의 결정권을 가지며 따라서 그 사람의 가사노동 참여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조미환·임정빈, 1997). 이때 자원은 교환 수단과 권력의 수단으로 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원 교환이론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거래와 계약에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가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은 결혼관계에도 적용되는데, 한 배우자의 임금, 직업, 지위 등과 같은 경제적인 능력은 상대 배우자의 가사노동의 수행과 교환된다는 것이다(Brayfield, 1992; 신소영, 1996에서 재인용). 권력 자원이론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배우자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짐으로써 가사노동의 수행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배우자에 비해 적은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이다(신소영, 1996).

즉, 자원은 가사노동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권력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자원이 많거나 또는 더 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을수록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비해 더 적은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신소영, 1996). 예를 들어 소득, 교육, 직업 등의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이기영 외, 2001). Maret와 Finlat(1984;권혜연, 1996에서 재인용)은 남편과 부인의 소득이 비슷할수록 가사노동의 분담정도가 평등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4.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1)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

가정에서 가사노동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는 저조한 편이었다(이미숙, 1994). 조미환과 임정빈(1997)의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평일의 경우, 남성은 평균 1시간 54분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자녀양육 영역이 46분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 채로와 이기영(2004)의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평일 평균 17분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2.9%

가 자녀학습지도에 치우쳐 있었다. 남편의 휴일 가사노동 시간은 조미환과 임정빈(1997)연구에서는 평일에 비해 보다 긴 시간인 4시간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로와 이기영(2004)의 맞벌이부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평균 1시간 7분으로 역시 평일에 비해 긴 시간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일에도 자녀에 관한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환과 임정빈(1997)연구의 경우, 휴일에 자녀양육에 1시간 37분으로 평일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관리영역은 약 15분 가량으로 가장 적은 참여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채로와 이기영(2004)의 맞벌이 부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휴일의 자녀학습지도 시간이 26분으로 38.8%를 차지하였다. 문숙재(1991)의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역시 남편이 가장 많이 도와주는 가사노동은 자녀 봐주기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들은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자녀돌보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을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문숙재(1991)는 주부가 평일에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평균 9.2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평일 평균 37분, 휴일 평균 98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주부는 3시간 28분, 남편의 경우는 32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5), 유희숙과 두경자(1995)의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의 맞벌이 부인의 경우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평일 평균 6시간 35분, 휴일 평균 12시간 7분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 남성의 경우 평일 평균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2시간 11분, 휴일 평균 5시간 18분으로 맞벌이 남성의 휴일 가사참여가 평일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일보다 휴일에 시간적 여유로 인하여 평소 소홀했던 가사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미환과 임정빈(1997)의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평일의 경우 1시간 54분, 휴일의 경우 4시간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는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영 외 3인(1994)은 도시근로자 가정의 가사노동에 관하여 전업주부의 남편과 취업주부의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을 연구하였다.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는 21분, 전업주부 남편은 20분을 평일의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있었으며, 전업주부 남편의 58%, 취업주부 남편의 51%가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에는 평일에 비하여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전업주부 남편에 비해 취업주부 남편이 주말에 가사노동 증가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농가가족원에 대한 이기영 외(2006)의 연구에서는 농가의 가족의 생활시간에서는 가사노동 시간(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농촌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총 노동시간이 남성에게 비해 매우 길었다.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은 여성의 14.3%정도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들의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관리 시간이 많았다. 가사노동 시간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여성 노인들 또한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농촌의 여성들 역시 농촌 외 지역의 여성들처럼 남성들에게 비해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남성들 역시 전통적으로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가사노동에는 미미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었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더라도 남성지향적인 과업 정도에만 참여를 하고 있는 정도였다.

계층별로 살펴본 신소영(1996)의 연구에서는 중류층 가족의 남편들이 하류층 남편들에 비하여 여성적인 과업에 참여 평균이 더 높았다. 중류층 남성들이 하류층 남성에 비해 참여도가 더 높은 이유는 중류층 가족의 남편들이 보다 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류층의 부인들이 행하는 여성형 과업이 하류층 가족의 부인이 수행하는 여성형 과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2)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영역

문숙재(1991)의 남편과 주부를 통하여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대해 알아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수준은 어찌다가 가끔 돕는 (월1~3번)수준이었는데, 가장 큰 참여영역은 청소 및 가족원 돌보기 같은 주생활영역이며, 가장 참여가 적은 영역은 음식 만들기과 같은 식생활영역이다. 손문금(2005)의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남성의 참여가 많은 가사노동 활동은 ‘청소 및 정리, 내구재 구매·수리, 차량 관련 서비스 받기’와 가족 보살피기 중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의 ‘책 읽어주기·놀아주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미환과 임정빈(1997)의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기혼 남성은 평일과 휴일 모두 자녀양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유희숙과 두경자(1999)의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사노동 영역 중에서 자녀양육에 가장 많은 참여 정도

를 보이고 있었는데, 평일의 경우는 46분, 휴일의 경우에는 144분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녀양육 다음으로 많은 참여를 보인 영역은 주생활 영역으로 평일의 경우 30분, 휴일의 경우 80분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으로 여성의 과업이라고 인식되는 영역일수록 남성의 참여가 적음을 알 수 있으며(조성은·문숙재, 1998), 가사노동의 성에 의한 분리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허경옥, 1994). 또한 남성들이 자녀양육에 많은 참여도를 보인 이유는 자녀양육의 경우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유희숙·두경자, 1999).

이미숙(1994)의 맞벌이 부부의 가사역할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식생활영역에서 남편의 참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총 7개의 식생활영역¹⁾ 중 반찬 만들기 영역에서의 남편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 의생활영역의 경우는 식생활영역의 참여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주생활영역의 경우 식생활과 의생활의 영역보다는 남편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미숙(1996)의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과 관한 연구에서도 주생활영역이 식생활과 의생활에 비해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생활영역 중에서도 간단한 집안일 수리 항목이 포함되어있어 이 항목에서의 남편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도 여전히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는 낮은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연숙 외(1991)의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남편이 도와주는 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집안청소가 58%, 주택손질, 수리는 51.8%로 취업주부의 반수 이상이 남편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아이돌보기의 경우는 34.7%로 비교적 높게 나

1) 이미숙(1994)의 연구에서 식생활영역은 밥하기, 반찬만들기, 기타음식준비, 상차리기, 걸거지, 식후정리, 식품시장보기로 구분하였다.

타났으나, 음식 만들기는 6.9%, 시장보기는 11%, 빨래는 13.7%로 비교적 도와주는 비율이 낮게 나온 영역이었다.

석보드라와 이기영(1999)의 부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저항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식생활영역에서의 수행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인식이 강했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전업주부의 남편의 경우는 역시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는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뚜렷한 인식차이는 역시 전통적으로 여성의 과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승미(1994)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영역별 참여여부중 남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영역은 주생활관련(55%)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채옥희(2002)의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다른 가사노동의 영역보다는 주생활영역에서 가사노동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남편들이 그 일을 하려 할 때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기영 외(2006)의 농가가족원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은 가사노동에서의 시간의 차이뿐 아니라 담당하는 일에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성의 경우 농한기의 기타 가사일을 제외하고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모두 참여정도가 매우 적었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과 참여영역은 여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며, 자녀돌보기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평일보다 휴일에 참여시간이 더 길었다. 가사노동 참여영역에서는 주로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에서의 남성의 참여가 낮았는데, 특히 식생활영역에서의 참여가 가장 낮았다.

5.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연령

조성은과 문숙재(1998)의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외부적 압력과 자발성 정도로 보고,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 가사노동 불가피형은 외부 압력 때문에 참여하는 집단이며, 두 번째 유형인 가사노동 회피형은 가사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성별 분리의식은 약해졌으나 참여정도에 변화가 없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가사노동 거부형으로 전통적인 성별 분업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가사노동 비참여를 당연하게 여기는 형이며, 마지막으로 가사노동 참여형은 전통적인 성별분리의식이 거의 사라졌으며 가사노동참여가 어느 정도 자발적인 유형이다. 특히 가사노동 거부형으로 분류된 남성들의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은 남성들이 높은 남성에 비해 성역할 분리의식이 약하고 성평등에 대한 교육경험이 더 많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했다.

이영미(1992)의 남편들의 가사노동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많다고 하였으며, 식생활영역의 경우 남편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사조력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채옥희(2002)의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맞벌이가정

남편의 87%가 가사노동 참여를 거부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40~50대에서 가장 컸다. 하류층 남성의 경우, 남편 자신의 연령이 적을수록 여성형 과업의 상대적인 참여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고(조성은· 문숙재, 1998; 조미환, 1998),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조성은· 문숙재, 1998). 또한 남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더 거부적인 경향을 보인다(채옥희, 2002).

2) 교육수준

조성은과 문숙재(1998)의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의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외부적 압력을 적게 받고 자발적 참여의사도 없는 가사노동 거부형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환(1998)의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화이트칼라직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남성의 경우 자신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식·주, 자녀양육, 구매, 관리영역에 관한 가사에 많이 참여하였다. 기은광과 이기영(2003)의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교육년차에 관하여 남편은 부인이 자신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을수록 현재의 가사노동 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남편보다 부인의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남편은 부인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인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미취학자녀 존재

박주희와 이숙현(1995)의 취업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성별 분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편의 총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미(1996)의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들의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국에 27세 이후 이민을 간 남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가사영역 중 의생활영역에서 자녀수가 없거나 적을수록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많다고 하였다. 신소영(1996)의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중류층 남편의 경우 남편들의 개별적인 수행 정도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신체적인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하는 미취학자녀를 둔 가족보다 신체적인 보살핌 대신 함께 놀아주는 것과 같은 여가적인 양육활동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에서 남편의 상대적인 참여도가 증가한다고 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중류층 남성의 경우 신체적인 보살핌보다는 자녀와 놀아주기 같은 여가적인 면에 집중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조미환과 임정빈(1997)의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취업주부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 참여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하며, 비취업주부 남편의 휴일가사 참여에는 자녀연령이 적을수록 휴일의 전체 가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조성은과 문숙재(1998)의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은 자녀양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4) 소득

소득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여부는 연구자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조성은과 문숙재(1998)의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여부는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남편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가사노동 참여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아내의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취업여성의 소득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소영(1996)의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하류층 남편의 경우, 남편의 소득에 대한 부인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여성형 과업의 상대적인 참여도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조미환과 임정빈(1997)의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취업부인 남편의 휴일 가사노동 참여에는 남편 자신의 소득이 부인보다 많을수록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허경옥(2004)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이 가사노동 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5) 직장노동과 직업지위

신소영(1996)의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지위의 수준에 따른 남편의 직업융통성이 가사참여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였다.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은 경우 직업의 융통성은 남편의 시

간적인 여유로서 남편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직업지위가 낮은 남편의 경우는 직업의 융통성이 비규칙적인 직업 노동시간을 의미하여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채로(2004)의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편이 전문직인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편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6) 직업노동시간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1994)의 맞벌이부부의 가사수행에 관한 연구에서도 남편의 주당 근무시간이 부인보다 많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승미(1994)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대한 연구에서 남편의 수입노동 시간이 1분 길어질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0.367분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허경옥(1994)의 미국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와 육아시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육아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시장노동 시간이 긴 남편일수록 육아시간은 감소하고, 시장노동 시간이 짧을수록 육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희와 이숙현(1995)의 취업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성별분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에 대해 유의한 변인으로 남편 자신의 근무시간을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편 자신의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가사노동 수행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조미환과 임정빈(1997)의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

보면 취업부인남편의 평일 가사노동 참여가 취업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에 적게 참여하였고, 비취업부인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업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에 적게 참여하고 있었다.

7)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

선행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성역할 태도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주의의 가부장제였던 우리사회는 산업화,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로 변화하였고, 이와 더불어 가정 안에서 가사분담에 대한 평등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승미(1994)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1.879분씩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신소영(1996)의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하류층과 중류층 남성들이 평등주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여성형 과업의 참여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특히, 중류층 남성의 경우 남편이 평등적인 성역할 인식을 할수록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하였다. 문숙재, 허경옥, 홍윤정(1997)의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유주의적일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주부의 절대적 가사노동 시간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미환과 임정빈(1997)의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일수록 가

사노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조미환(1998)의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가사참여에는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유희숙과 두경자(1999)의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현대적일수록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송혜림(2000)의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특성을 가질수록 가사참여정도는 높고, 보수적일수록 낮다고 하였다. 채로(2004)의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남편의 부인은 보수적인 남편의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을 많이 하였으며,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이 보수적인 집단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여줬다.

가사노동 참여를 각 영역별로 살펴본 이미숙(1994)의 맞벌이 부부의 가사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식주생활영역에서 식생활영역의 남편의 성역할분리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하였고,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에서 성별역할 분리를 덜 지지하는 남편일수록 가사참여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주생활부분에서는 근대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일수록 가사참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숙(1996)의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편이 융통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가사에 더 참여를 한다고 하였으며, 남성적인 성역할태도는 자신의 가사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성역할태도에 대한 남성의 의식에 따라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8) 부인의 취업여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증가 여부는 연구자별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문숙재(1991)의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부가 취업한 경우 남편의 도움이 증가하는 바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나, 허경옥(1994)의 미국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장 노동 시간이 긴 부인이 있는 남성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중심형의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부인이 취업한 기혼남성은 부인의 이중역할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조미환과 임정빈(1997)의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양육참여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반가사 참여에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부인이 취업한 남편은 부인이 전업주부인 남편보다 평일의 일반가사에 약 2배 정도 더 많이 참여하고 휴일에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은광과 이기영(2003)의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이 부인에게 주는 불공평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부인의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손문금(2005)의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장노동 이외의 노동을 무급노동으로 정의하고 가사노동을 무급노동의 일부로 보았는데, 부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 미취학자녀의 존재, 성별분업에 관한 인식, 직장에서의 지위와 직업노동 시간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여부 변인은 연구자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들로 혼인여부를 주요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미취학자녀의 존재, 부인의 취업여부 등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고려할 때 혼인상태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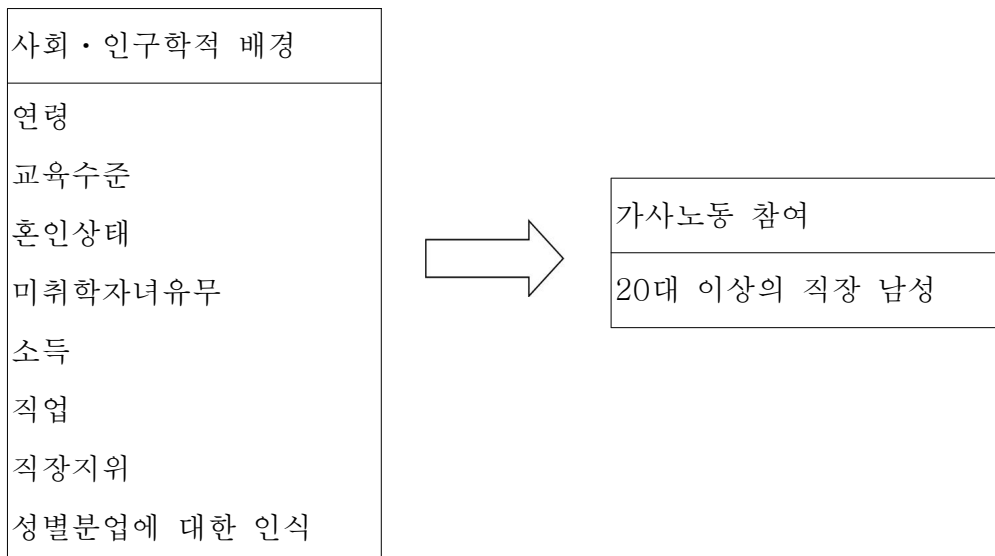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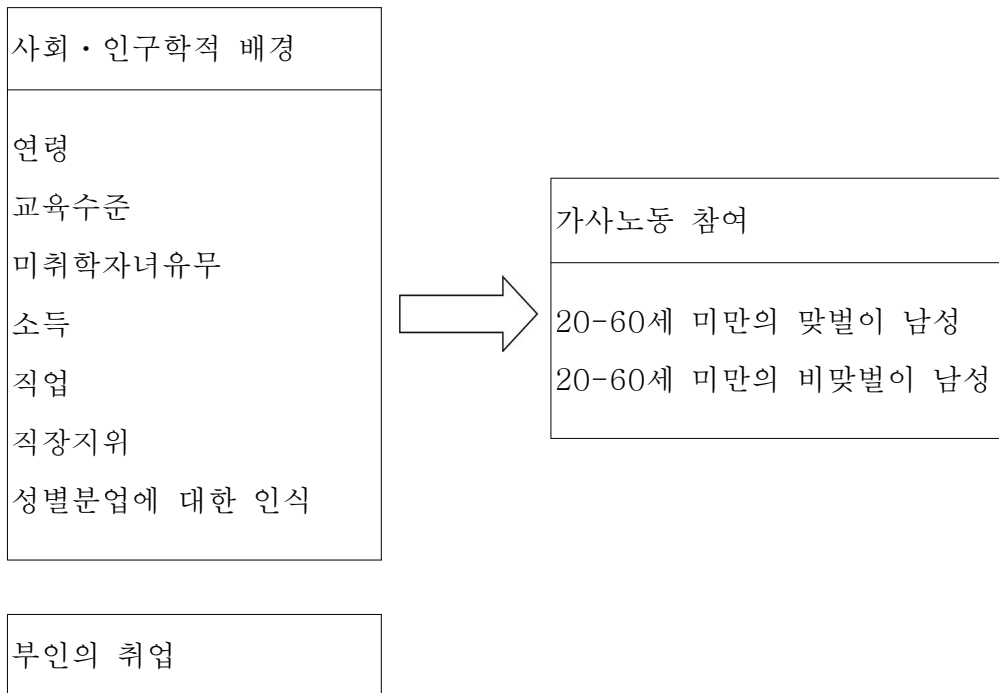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세 이상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20대 이상 직장 남성



[그림 1] 연구모형1

<2> 20-60세 미만 기혼 남성



[그림 2] 연구모형2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전체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영역별 참여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남성에 대한 가사노동 요구가 높을 것이라 생각하는 맞벌이 가정과 비맞벌이 가정의 남성의 가사노동 영역별 참여시간의 차이와 영향 변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은 어떠하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간의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은 어떠하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사용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및 연구표본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2004년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raw date)이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 주

관으로 1999년 9월에 제 1회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4년 9월에 제 2회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었다. 제 2회 생활시간조사는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2일간 조사된 것으로, 조사 목적은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 연구의 기초 자료로써 쓰이고 있다.

표본은 전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²⁾의 표본조사구중 850조사구를 추출하여 선정되었으며, 각 조사구에서 15가구를 뽑아 총 12,750가구의 약 32,000명을 추출한 것으로 만1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관련 항목과 개인관련 항목은 조사담당자가 면담을 통하여 조사되었고, 시간일지는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time-diary)를 배포하여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구분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기입하도록 하였다³⁾.

조사항목에서 개인관련사항은 15개의 항목으로 성,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구학적 특성, 미취학자녀에 대한 사항과 경제활동상태, 성(gender)역할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묻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직장을 가진 남성들로, 이들을 연령별로 나눈 후, 혼인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2) 학력, 혼인상태 항목은 2004년 8월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3) 직접 기입식 조사방식(after-coded diary)을 채택하였다.

<표2> 가사노동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식사준비
		설거지, 식후정리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의류관리	세탁 및 세탁물 널기
		옷 정리(세탁물건기, 옷장 정리 등)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
	청소 및 정리	의류수선, 세탁서비스 받기
		재봉, 뜨개질
		방·물품 정리
	집 관리	집안 청소(쓸기, 닦기)
그외 청소 및 정리		
가재도구· 집 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받기	
	그외 집관리	
	시장보기(식료품, 일용품: 세제, 휴지 등)	
가정경영	쇼핑하기(의복, 신발, 장식품 등)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무점포 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기타 가사일	가계부 정리	
	가정계획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신체적 돌보기(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등)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미취학자녀 간호 기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가족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숙제 및 공부 봐주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방문 초·중·고등학생 간호 기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배우자 간호 기타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간호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외 가족 보살피기	그외 가족 간호 기타 그외 가족 보살피기

<표2>에 나타나 있듯이 시간일지에 기록된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은 크게 2부분, 즉 가정관리 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으로 나뉘지며 각각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 분류는 통계청의 행동분류표를 따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두 가지 내용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영역을 "가사노동"이라고 칭하였다.

2) 연구표본

본 연구의 대상은 전체 대상 중에서 20세 이상의 직장을 가진 성인남성만을 추출한 결과 19,242명이 분석대상이다. 또한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는 성인남성 중 맞벌이를 하고 있는 20대부터 60세 미만의 7,01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 20대부터 60세 미만의 56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남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미취학자녀유무, 소득, 직업, 직장지위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역할 인식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찬성, 반대의 응답으로 알아보았다. 교육수준은 원자료에 무학, 초등졸, 중등졸, 고등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으로 되어있으나, 무학, 초등졸, 중등졸, 고등졸, 전문대졸이상의 변수로 재구분하여 처리하였다. 직업은 원자료에 의회위원, 고위공무원, 관리자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숙련업,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마지막으로 단순노무, 기타종사자로 나뉘어져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숙련업과 조립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로 재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사노동 참여영역과 참여시간이며, 하위영역을 통계청 분류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가정관리 영역의 중분류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중분류는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의

가족 보살피기가 포함된다.

3. 자료 분석방법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한 본 연구는 SPSS 14.0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20세 이상의 직장 남성 전체와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남성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유무, 소득 등 20대 이상 직장 남성 19,242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3>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20대 이상의 직장 남성을 살펴보면 20대가 2,303명(12.0%), 30대가 5,446명(28.3%), 40대가 5,858명(30.4%), 50대가 3,132명(16.3%), 60대 이상이 2,500명(13.0%)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남성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전문대이상, 중등, 초등, 무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81.3%의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는 미혼 혹은 사별이나 이혼의 상태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유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20.8%, 없는 경우가 79.2%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100~150만원 미만인 25.5%, 그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의 순으로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에서는 조립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가 7938명(41.3%),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가 3866명(20.1%), 서비스판매가 2854명(14.8%), 농림어업 숙련업이 2328명(12.1%), 마지막으로 사무종사자가 2256명(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평균 연령은 43.85세이며, 평균 주업일한 시간은 전체 20대 직장 남성의 경우에는 50.80시간이었다.

<표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응답범주	20대 이상 직장 남성 (n=19242)	
		N	%
연령	20대	2306	12.0
	30대	5446	28.3
	40대	5858	30.4
	50대	3132	16.3
	60대 이상	2500	13.0
	계	19242	100%
교육수준	무학	386	2.0
	초등	1812	9.4
	중등	2136	11.1
	고등	7704	40.0
	전문대 이상	7204	37.4
	계	19242	100
혼인상태	미혼	2972	15.4
	유배우	15648	81.3
	사별, 이혼	622	3.2
	계	19242	100%
미취학자녀유무	미취학자녀 유	4000	20.8
	미취학자녀 무	15242	79.2
	계	19242	100%
소득	100만원 미만	3984	20.7
	100~150만원 미만	4914	25.5
	150~200만원 미만	3504	18.2
	200~300만원 미만	4244	22.1
	300만원 이상	2596	13.5
	계	19242	100%

직업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3866	20.1
	사무종사자	2256	11.7
	서비스 판매	2854	14.8
	농림어업 숙련업	2328	12.1
	조립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	7938	41.3
	계	19242	100%
직장지위	임금, 봉급근로자	11872	61.7
	고용원을 둔 사업주	1776	9.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5270	27.4
	무급가족종사자	324	1.7
	계	19242	100%
변수명	MEAN	SD	
연령	43.85	12.6134	
주업일한시간	50.81	16.1321	

2) 연구대상자의 가사노동시간

20대 이상 직장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4-1>에 제시되어있다. 20대 이상의 직장 남성이 일하는 평균 시간은 주당 50.81시간이다.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평균 약 10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대 이상 직장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34분정도이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의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가정관리 영역이 가족보살피기 영역보다 10분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었다. 20대 이상의 직장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 영역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 음식준비 및 정리, 집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남성의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보이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는 미취학자녀보살피기 영역이 다른 가족원보살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4>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활용 형태

	20대 이상 직장 남성 (n=19242)
	평균시간
주업일한시간(시간)	50.81
가사노동활용시간	34.05
가정관리(소계)	22.73
음식준비 및 정리	5.27
의류관리	1.06
청소 및 정리	6.47
집관리	4.72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4.27
가정경영	0.76
기타 가사일	0.18
가족보살피기(소계)	11.32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6.97
초중고생 보살피기	1.62
배우자 보살피기	0.8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1.44
그외 가족 보살피기	0.49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영역

1)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20대 이상 직장 남성들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5-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정관리 영역을 살펴보면 20대 직장 남성의 경우는 1일 평균 15.94분, 30대 직장 남성의 경우는 20.19분, 40대 직장 남성의 경우는 21.66분, 50대 직장 남성의 경우는 25.15분, 60대 이상의 직장 남성의 경우는 34.01분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관리 영역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F=57.571, p<.05$).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대 직장 남성의 경우 6.89분, 30대 직장 남성의 경우 21.22분, 40대 직장 남성의 경우에는 9.43분, 50대 직장 남성의 경우는 5.34분, 60대 이상의 직장 남성의 경우에는 5.74분의 시간을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F=148.417, p<.05$).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조성은과 문숙재(1998)의 기혼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조미환(1998)의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에 많이 참여한다고 한다는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가정내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장노동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남성의 가

정내에서의 경제적인 지위약화와 함께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30대 남성의 참여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30대에 혼인을 하는 남성의 증가와 함께 가족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미취학자녀로 인하여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증가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5-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n=19242)(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Duncan	MEAN	Duncan
20대 (n=2306)	15.94	a	6.89	a
30대 (n=5446)	20.19	b	21.22	c
40대 (n=5858)	21.66	b	9.43	b
50대 (n=3132)	25.15	c	5.34	a
60대 이상 (n=2500)	34.01	d	5.74	a
F	57.571***		148.417***	

(***p<.001)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20대 이상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의 세부사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 결과는 <표5-2>에 제시하였다. 가정관리 영역의 7개의 하위 영역 중 6개의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대부분의 가정관리 영역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의 참여시간이 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은퇴를 앞두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음식 준비 및 정리의 영역에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점은 60대 이상의 남성의 참여시간이 다른 연령대의 남성에 비하여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음식 준비 및 정리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과업이라고 여겨지던 영역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하여 남성들의 참여시간이 저조한 영역으로 2,30대의 남성들에 비하여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던 60대 이상의 남성들의 참여시간이 크다는 것은 주목해볼만하다.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정내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약해짐에 따라 가정내에서의 참여도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부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연관 지어서 음식 준비 및 정리 영역에서의 60대 이상의 남성의 참여시간이 매우 큰 반면에, 가정관련 물품구입의 영역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남성들의 참여시간이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경제적으로 약해진 남성들이 가정내에서의 경제력이 여성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정관리 세부영역에서 남성들이 가장 큰 참여시간을 보이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와 집관리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숙재(1991)의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인가의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식생활과 의생활 영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참여를 보인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표5-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M	D	M	D	M	D	M	D	M	D	M	D	M	D
20대 (n=2306)	4.58	a	1.11	a	4.39	a	1.86	a	3.60	ab	0.37	a	0.03	a
30대 (n=5446)	4.44	a	1.14	a	5.25	ab	2.90	a	5.62	c	0.71	b	0.13	ab
40대 (n=5858)	4.50	a	1.03	a	6.12	b	4.89	b	4.30	b	0.71	b	0.12	ab
50대 (n=3132)	5.65	b	1.15	a	7.29	c	6.55	c	3.42	a	0.87	b	0.23	c
60대 이상 (n=2500)	9.07	c	0.81	a	10.84	d	8.64	d	2.95	a	1.20	c	0.51	d
F	35.309 ***		1.350		48.202 ***		38.083 ***		15.479 ***		6.234 ***		11.355 ***	

(가: 음식준비 및 정리/나: 의류관리/다: 청소 및 정리/라: 집관리/

마: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바: 가정경영/사: 기타가사일)

(***p<.001)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을 가진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5-3>과 같다. 남성들이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나타낸 영역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인 유희숙과 두경자(1999)의 연구에서도 가사노동

영역 중 자녀양육에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는 미취학자녀 보살피기에 두드러진 참여시간을 보였는데, 남성들이 평균 20~30대에 결혼을 하고, 30대에 초등학교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하면 30대 미취학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40대에 초중고생 자녀보살피기 정도가 큰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는 40대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5-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M	D	M	D	M	D	M	D	M	D
20대 (n=2306)	5.03	b	0.13	a	0.22	a	1.44	b	0.07	a
30대 (n=5446)	16.37	c	1.96	b	0.75	ab	1.58	b	0.55	b
40대 (n=5858)	3.10	a	3.07	c	0.90	b	1.80	b	0.56	b
50대 (n=3132)	2.19	a	0.46	a	0.54	ab	1.54	b	0.61	b
60대 이상 (n=2500)	3.29	a	0.30	a	1.51	c	0.20	a	0.45	b
F	255.738 ***		63.005 ***		4.589 **		3.577 **		2.087	

(가: 미취학자녀/나: 초중고생/다: 배우자/라: 부모, 조부모/마: 그외가족)
(**p<.01 ***p<.001)

2)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정도에 대한 차이는 <표6-1>에 제시하였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무학의 남성은 하루 평균 30.57분, 초등학력을 가진 남성은 평균 32.86분, 중등학력의 남성은 평균 23.44분, 고등학력의 남성은 평균 21.27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의 남성은 평균 21.11분의 시간을 참여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시간은 감소하였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일원분산분석결과 학력별 가정관리 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9.073, 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등, 고등,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과 무학과 초등의 학력 수준을 가진 남성들의 가정관리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에는 무학의 학력을 가진 남성은 평균 4.04분, 초등의 학력을 가진 남성은 평균 4.82분, 중등의 학력을 가진 남성은 평균 6.55분, 고등의 학력을 가진 남성은 평균 11.10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은 평균 14.99분의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시간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에 많이 참여한다는 조미환(1998)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F=44.677, 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남성들, 무학, 초등, 중등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의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이 많았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음에 따라 자신이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가사참여를 덜 하게 된다는 상대적 자원가설과 부합된다. 또한,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가족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족에 대한 중요함을 더 크게 인식하여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6-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n=19242)(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Duncan	MEAN	Duncan
무학 (n=664)	30.57	b	4.04	a
초등 (n=2592)	32.86	b	4.82	a
중등 (n=2774)	23.44	a	6.55	a
고등 (n=8942)	21.27	a	11.10	b
전문대이상 (n=9170)	21.11	a	14.99	c
F	29.073***		44.677***	

(***p<.001)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가정관리의 7개 세부영역에 대한 교육수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6-2>에 제시하였다. 의류관리와 가정경영을 제

외한 5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들의 5개 가정관리영역에 대한 참여시간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한다는 조미환(1998), 기은광과 이기영(2003)의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도우미나 가사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학인 남성에 비해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도가 적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6-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M	D	M	D	M	D	M	D	M	D	M	D	M	D
무학 (n=386)	9.38	c	0.70	a	10.57	b	6.53	cd	2.36	a	0.73	a	0.31	a
초등 (n=1812)	9.76	c	1.10	a	9.43	b	8.31	d	3.21	ab	0.80	a	0.25	a
중등 (n=2136)	5.97	b	0.82	a	6.81	a	6.12	bc	2.73	ab	0.81	a	0.18	a
고등 (n=7704)	4.82	ab	1.00	a	5.97	a	4.40	ab	3.98	b	0.87	a	0.23	a
전문대이상 (n=7204)	4.21	a	1.21	a	5.93	a	3.66	a	5.39	c	0.61	a	0.10	a
F	42.495	***	2.202		18.525	***	16.705	***	16.199	***	1.829		2.451	*

(가: 음식준비 및 정리/나: 의류관리/다: 청소 및 정리/라: 집관리/마: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바: 가정경영/사: 기타가사일)

(*p<.05 ***p<.001)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보살피기의 5개 영역에 대한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6-3>에 제시하였다.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가사노동은 전체 5개 영역 중 미취학아동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3개 영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에 많이 참여한다는 조미환(1998)의 연구를 지지한다. 특히,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참여시간은 다른 가족원 보살피기 참여시간에 비해 많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다. 미취학자녀의 경우 아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나이이며, 자녀양육은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보낸다는 면에서 여가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미취학아동		초중고생		배우자		부모, 조부모		그 외 가족	
	M	D	M	D	M	D	M	D	M	D
무학 (n=386)	2.18	a	0.03	a	1.27	a	0.00	a	0.57	a
초등 (n=1812)	2.78	a	0.30	a	0.82	a	0.35	ab	0.58	a
중등 (n=2163)	3.40	a	0.47	a	0.98	a	1.04	ab	0.67	a
고등 (n=7704)	6.22	b	1.82	b	0.87	a	1.67	b	0.52	a
전문대이상 (n=7204)	10.13	c	2.16	b	0.63	a	1.67	b	0.39	a
F	51.801 ***		22.054 ***		0.760		3.087 *		0.732	

(*p<.05 ***p<.001)

3)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대 이상 남성들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관해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7-1>과 같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미혼 남성은 하루 평균 17.96분,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평균 22.48분, 사별이나 이혼을 한 남성은 평균 51.95분의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F=142.882, p<.05). 사후검정 결과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을 한 남성은 가정관리시간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

자의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가사노동 요구로 인하여 남성의 참여시간이 타의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미혼인 남성의 경우는 평균 2분,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평균 13.20분, 사별이나 이혼을 한 남성은 평균 8.34분의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F=117.853, p<.05$).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남성의 참여시간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배우 남성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녀와 배우자 및 부모, 조부모의 보살피기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혼 남성은 다른 남성들에 비하여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 남성들은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남성을 가사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혼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나 사별 혹은 이혼을 한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본다.

<표7-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n=19242)(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Duncan	MEAN	Duncan
미혼 (n=2972)	17.96	a	2.00	a
유배우 (n=15648)	22.48	b	13.20	c
사별, 이혼 (n=622)	51.95	c	8.34	b
F	142.882***		117.853***	

(***p<.001)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7-2>와 같다. 미혼, 유배우와 사별, 이혼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별, 이혼한 남성의 참여시간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체 가정관리 영역에 대한 분석결과와 같이 가사일을 해줄 조력자의 부재로 인하여 남성이 가사일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배우자 남성의 경우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영역에서 다른 남성에 비하여 참여시간이 적었는데, 이는 결혼한 남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의 과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남성의 참여도가 낮다는 조성은과 문숙재(199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별과업의 분리는 집관리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배우자 남성의 경우 가장 많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와 집관리 영역이다. 간단한 집수리와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에서 유배우자 남성의 참여시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7-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M	D	M	D	M	D	M	D	M	D	M	D	M	D
미혼 (n=15648)	6.22	a	1.62	a	4.64	b	2.23	b	2.76	b	0.44	a	0.05	a
유배우 (n=2972)	4.27	b	0.80	b	6.68	a	5.18	a	4.54	a	0.79	a	0.21	a
사별, 이혼 (n=622)	25.95	c	4.94	c	9.89	c	5.18	b	4.50	b	1.40	b	0.10	a
F	266.157		136.156		24.970		19.292		14.199		7.996		4.165	
	***		***		***		***		***		***		*	

(가: 음식준비 및 정리/나: 의류관리/다: 청소 및 정리/라: 집관리/

마: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바: 가정경영/사: 기타가사일)

(*p<.05 ***p<.001)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표7-3>와 같다. 유배우와 사별이나 이혼을 한 남성의 경우 가장 큰 참여시간을 보이는 영역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와 초중고생 보살피기 영역이다. 반면에 미혼의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시간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의 남성의 경우 아직 결혼 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보살피기 영역이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이며, 결혼한 남성의 경우 자녀보살피기에

대한 시간이 많은 것이다.

<표7-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M	D	M	D	M	D	M	D	M	D
미혼 (n=15648)	0.54	c	0.09	b	0.00	b	1.01	a	0.37	a
유배우 (n=2972)	8.34	a	1.88	a	0.98	a	1.54	a	0.47	a
사별, 이혼 (n=622)	3.17	b	2.41	b	0.00	a	1.16	a	1.61	b
F	116.072 ***		39.380 ***		11.065 ***		1.141		7.024 **	

(가: 미취학자녀/나: 초중고생/다: 배우자/라: 부모, 조부모/마: 그외가족)

(**p<.01 ***p<.001)

4)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20세 이상 직장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11>와 같으며, 가정관리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없는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가족보살피기는 자녀가 있는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미취학자녀

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참여시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980, p<.05$).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보살피기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t=30.718, p<.05$).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남성의 참여시간이 달라진다는 알 수 있으며, 아직은 전반적으로 많은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자녀로 인하여 남성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관리시간은 적고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많은 것은 남성들이 퇴근 후에 한정된 시간을 자녀 돌보기에 더 많이 할애하므로 상대적으로 가정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표8-1> 20세 이상 직장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n=19242)(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SD	MEAN	SD
미취학자녀유 (n=4000)	19.70	42.19	32.91	54.12
미취학자녀무 (n=15242)	23.53	47.09	5.56	28.36
t	-4.980***		30.718***	

(***p<.001)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20세 이상 직장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의 세부사항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8-2>와 같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없는 남성의 경우에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관리 영역보다는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미취학자녀가 없는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8-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유 (n=4000)	3.13	11.93	0.75	5.09	5.40	18.74	3.55	20.79	6.12	20.06	0.63	5.08	0.13	2.38
무 (n=15242)	45.84	19.10	1.14	6.81	6.75	19.02	5.03	24.53	3.78	15.77	0.79	6.16	0.19	2.94
t	-11.123		-4.042		-4.041		-3.855		6.831		-1.744		-1.357	
	***		***		***		***		***					

(가: 음식준비 및 정리/나: 의류관리/다: 청소 및 정리/라: 집관리/

마: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바: 가정경영/사: 기타가사일)

(***p<.001)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 사항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20세 이상 직장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세부사항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8-3>와 같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취학자녀가 있음으로 인하여 남성들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M	SD	M	SD	M	SD	M	SD	M	SD
유 (n=4000)	28.46	48.24	1.67	10.24	0.81	10.72	1.48	16.41	0.49	8.44
무 (n=15242)	1.33	11.14	1.61	10.38	0.79	11.38	1.44	18.70	0.49	7.43
t	35.323 ***		0.337		0.110		0.122		-0.011	

(가: 미취학자녀/나: 초중고생/다: 배우자/라: 부모, 조부모/마: 그외가족)

(***p<.001)

5)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9-1>에 제시되어있다.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의 경우는 평균 31.02분, 100~150만원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22.04분, 150~200만원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18.64분, 200~300만원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20.23분,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20.94분의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F=43.785$, $p<.05$).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참여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경제적, 물질적으로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사노동을 덜 한다는 상대적 자원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에 비하여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과 150~200만원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의 참여시간이 더 적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고소득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100만원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7.26분, 100~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9.69분, 150~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12.42분, 200~300만원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16.27분,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은 평균 11.12분의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F=34.515$, $p<.05$).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평균 11.12분)보다 100만원 미만의 소

득을 가지는 남성(평균 7.26분)의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가정관리 영역과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남성의 참여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가정관리 영역과는 달리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족에 대한 중요함을 더 크게 인지하게 되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9-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n=19242)(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Duncan	MEAN	Duncan
~100만원미만 (n=3984)	31.02	c	7.26	a
100~150만원미만 (n=4914)	22.04	b	9.69	b
150~200만원미만 (n=3504)	18.64	a	12.42	c
200~300만원미만 (n=4244)	20.23	ab	16.27	d
300만원 이상 (n=2596)	20.94	b	11.12	bc
F	43.785***		34.515***	

(***p<.001)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표9-2>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시간이 증가하고 있었다.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와 같은 영역에서 소득이 적은 남성이 소득이 높은 남성에 비하여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면이 포함되는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과 가정경영 영역에서는 소득이 높은 300만원 이상의 남성의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많은 남성일수록 가정관리 영역을 대체인력을 통하여 시장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남성에 비하여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도가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남성일수록 경제적인 자원에 대한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 사회경제적 혹은, 물질적으로 자원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더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가사노동의 참여가 감소한다는 상대적 자원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표9-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M	D	M	D	M	D	M	D	M	D	M	D	M	D
-100만원														
미만 (n=3984)	9.43	c	1.28	c	9.08	c	6.81	c	3.33	a	0.81	ab	0.26	a
100-150														
만원미만 (n=4914)	5.01	b	1.18	bc	6.62	b	4.92	b	3.57	a	0.57	a	0.17	a
150-200														
만원미만 (n=3504)	3.99	a	0.87	ab	5.22	a	3.63	a	3.87	a	0.84	ab	0.21	a
200-300														
만원미만 (n=4244)	3.91	a	1.07	abc	5.37	a	3.83	ab	5.18	b	0.74	ab	0.13	a
300만원														
이상 (n=2596)	3.35	a	0.76	a	5.64	a	4.06	ab	6.06	c	0.94	b	0.12	a
F	73.370 ***		3.667		27.727 ***		11.604 ***		16.327 ***		2.095		1.550	

(가: 음식준비 및 정리/나: 의류관리/다: 청소 및 정리/라: 집관리/

마: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바: 가정경영/사: 기타가사일)

(***p<.001)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의 결과는 <표9-3>과 같다. 소득이 높을수록 미취학자녀와 초중고생자녀 보살피기에 대한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가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투자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투자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9-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M	D	M	D	M	D	M	D	M	D
-100만원미만 (n=3984)	3.93	a	0.88	a	0.94	a	0.99	a	0.51	ab
100-150만원미만 (n=4914)	6.13	b	1.12	ab	0.72	a	1.20	a	0.47	ab
150-200만원미만 (n=3504)	8.35	c	1.40	b	0.65	a	1.46	a	0.57	b
200-300만원미만 (n=4244)	9.95	d	2.48	c	0.80	a	2.40	b	0.64	b
300만원 이상 (n=2596)	6.97	b	2.58	c	0.90	a	1.02	a	0.17	a
F	30.520 ***		21.344 ***		0.421		4.078 *		1.668	

(가: 미취학자녀/나: 초중고생/다: 배우자/라: 부모, 조부모/마: 그외가족)

(*p<.05 ***p<.001)

6)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시간 분석결과는 <표10-1>에 제시하였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 평균 32.17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무종사자가 평균 23.31분의 참여시간을, 다음으로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 서비스판매,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인 남성들은 평균 19.92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0.127, p<.05$).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에는 사무종사자인 남성이 평균 16.78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관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였던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 가족보살피기의 영역에서는 평균 6.93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나타내고 있다($F=35.661, p<.05$).

<표10-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n=19242)(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Duncan	MEAN	Duncan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n=3866)	19.92	a	13.97	c
사무종사자 (n=2256)	23.31	b	16.78	c
서비스 판매 (n=2854)	20.86	b	10.83	b
농림어업 숙련업 (n=2328)	32.17	c	6.93	a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 (n=7938)	21.84	ab	9.55	b
F	30.127***		35.661***	

(***p<.001)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20대 이상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의 세부사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10-2>에 제시하였다.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경영, 기타가사일에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나타냈으며, 사무종사자와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인 남성의 경우는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직업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데, 농림업의 경우 농번기에는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농한기에는 농번기에 비해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남는 시간을 가사일에 할애할 수 있다. 사무종사자와 고위공무원인 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남성에 비하여 고소득인 직업을 가진 남성으로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지위가 높음으로 인하여 가정경제 관리를 포함한 가정운영에 관한 부분에서도 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0-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M	D	M	D	M	D	M	D	M	D	M	D	M	D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n=3866)	3.54	a	0.90	ab	6.20	a	3.13	a	5.46	b	0.56	a	0.13	ab
사무종사자 (n=2256)	4.42	ab	1.47	c	6.62	a	4.19	ab	6.15	b	0.39	a	0.06	a
서비스 판매 (n=2854)	4.66	b	1.05	b	5.91	a	4.47	b	3.37	a	1.16	b	0.23	b
농림어업														
숙련업 (n=2328)	8.78	d	0.61	a	9.51	b	8.29	c	3.35	a	1.23	b	0.39	c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 (n=7938)	5.55	c	1.16	bc	5.86	a	4.69	b	3.74	a	0.67	a	0.16	ab
F	34.323		6.102		17.901		17.808		17.684		10.496		4.885	
	***		***		***		***		***		***		**	

(가: 음식준비 및 정리/나: 의류관리/다: 청소 및 정리/라: 집관리/

마: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바: 가정경영/사: 기타가사일)

(**p<.01 ***p<.001)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족보살피기에 대한 세부영역을 살펴본 결과는 <표10-3>와 같다. 사무종사자와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남성의 경우 미취학자녀 보살피기에 대한 참여도가 다른 직업의 남성들

에 비하여 두드러진 참여시간을 보여주었다. 초중고생보살피기 영역과 부모, 조부모 보살피기 영역에서도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인 남성이 다른 직업의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참여시간을 보였다. 배우자보살피기와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영역에서는 직업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0-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M	D	M	D	M	D	M	D	M	D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n=3866)	9.66	c	2.51	c	0.60	a	2.01	bc	0.24	a
사무종사자 (n=2256)	10.76	c	1.85	b	1.06	a	2.61	c	0.50	a
서비스 판매 (n=2854)	6.90	b	1.66	b	0.57	a	1.23	ab	0.47	a
농림어업 숙련업 (n=2328)	3.35	a	0.74	a	1.09	a	1.16	ab	0.59	a
조립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 (n=7938)	5.66	b	1.36	b	0.81	a	1.00	a	0.60	a
F	37.410 ***		12.822 ***		1.282		4.652 **		1.550	

(가: 미취학자녀/나: 초중고생/다: 배우자/라: 부모, 조부모/마: 그 외 가족)

(**p<.01 ***p<.001)

7)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업 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11-1>과 같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임금, 봉급을 받는 근로 남성은 하루 평균 21.81분,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평균 16.09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경우 평균 26.54분, 무급가족 종사자는 평균 30.86분의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F= 29.298, p<.05$).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에는 임금,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평균 12.74분,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평균 9.78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평균 8.89분, 무급가족종사자는 평균 7.10분의 참여시간을 나타냈으며, 이는 일원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F=15.903, p<.05$).

임금, 봉급 근로자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정관리 시간의 차이는 시장노동 시간의 패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임금, 봉급 근로자는 시장노동 시간이 규칙적으로 짜여 있고, 스스로 시장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없으나,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시장노동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장노동 시간을 조정하여 가정관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임금, 봉급근로자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보살피기가 남성의 시간사용의 자율성이나 여력보다 가족보살피기에 대한 요구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보살피기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요구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어린자녀, 초·중·고생, 노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 자신의 생활시간 사용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다.

<표11-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n=19242)(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Duncan	MEAN	Duncan
임금, 봉급 근로자 (n=11872)	21.81	b	12.74	b
고용원을 둔 사업주 (n=1776)	16.09	a	9.78	ab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n=5270)	26.54	c	8.89	a
무급가족종사자 (n=324)	30.86	d	7.10	a
F	29.298***		15.903***	

(***p<.001)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아래의 <표11-2>와 같다. 대부분의 세부영역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의 경우는 참여시간이 길었던 반면 고용원을 둔 사업주인 남성들의 참여시간이 짧았다.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은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영역에서 참여시간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무급가족종사자 남성의 가정에서의 낮은 경제적인 지위가 물품구입 관련 참여시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의 경우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

하여 가정관리 참여시간이 다른 남성에 비해 길다고 볼 수 있다.

<표11-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임금,봉급														
근로자 (n=11872)	5.11	b	1.29	b	6.24	b	3.81	a	4.67	b	0.55	a	0.14	a
고용원을 둔 사업주 (n=1776)	2.62	a	0.42	a	4.06	a	3.13	a	4.67	b	1.07	ab	0.11	a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n=5270)	6.37	bc	0.75	ab	7.45	b	7.21	b	3.36	b	1.09	ab	0.31	a
무급가족 종사자 (n=324)	7.87	c	1.30	b	11.88	c	6.57	b	1.88	a	1.27	b	.09	a
F	22.307		14.820		23.659		28.463		9.949		12.450		5.098	
	***		***		***		***		***		***		*	

(가: 음식준비 및 정리/나: 의류관리/다: 청소 및 정리/라: 집관리/

마: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바: 가정경영/사: 기타가사일)

(*p<.05 ***p<.001)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11-3>과 같다. 임금, 봉급 근로자 남성들이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과 부모, 조부모 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참여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금, 봉급 근로자 남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시간을 대부분 자녀 돌보거나 부모 돌보기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생 자녀 보살피기 영역은 고용원을 둔 사업주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임금, 봉급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1-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M	D	M	D	M	D	M	D	M	D
임금, 봉급근로자 (n=11872)	8.19	b	1.58	ab	0.80	a	1.74	a	0.43	a
고용원을 둔 사업주 (n=1776)	5.50	a	2.46	b	0.50	a	0.94	a	0.48	a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n=5270)	4.87	a	1.43	a	0.93	a	0.99	a	0.66	a
무급가족종사자 (n=324)	4.04	a	1.48	a	0.19	a	1.14	a	0.19	a
F	22.580 ***		4.500 *		0.968		2.803 *		1.261	

(가: 미취학자녀/나: 초중고생/다: 배우자/라: 부모, 조부모/마: 그외가족)
(*p<.05 ***p<.001)

8)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남성들의 성별분업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와 가사노동 시간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12-1>와 같다. 20세 이상의 직장 남성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 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n=19242)(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SD	MEAN	SD
찬성(n=10290)	23.02	47.98	11.06	36.57
반대(n=8952)	22.40	43.91	11.61	37.53
t	0.942		-1.025	

(1)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에 대한 결과는 <표12-2>와 같다. 전체 가정관리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세부사항을 살펴본 결과, 음식준비 및 정리 영역과 의류관리 영역,

집관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음식준비 및 정리 영역과 의류관리 영역의 경우에는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의 참여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미숙(1994)의 맞벌이 부부의 가사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에서 성별역할 분리를 덜 지지하는 남편일수록 가사참여가 증가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결과이다.

<표12-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찬성 (n=10290)	4.99	17.61	0.88	5.77	6.47	19.80	5.36	27.28	4.29	16.94	0.81	6.27	0.22	3.21
반대 (n=8952)	5.60	18.18	1.27	7.23	6.46	17.98	3.99	19.04	4.24	16.60	0.70	5.57	0.14	2.32
t	-2.346 *		-4.171 ***		0.022		4.099 ***		0.211		1.365		1.953	

(가: 음식준비 및 정리/나: 의류관리/다: 청소 및 정리/라: 집관리/

마: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바: 가정경영/사: 기타가사일)

(*p<.05 ***p<.001)

(2)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영역 세

부사항에 대한 결과는 <표12-3>과 같다. 5개의 세부영역 중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t=-2.003$, $p<.05$).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에서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의 참여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업에 대한 남성의 생각이 평등적인 인식을 가진 남성이 불평등적인 인식을 가진 남성에게 비해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에 참여가 높다는 결과이다.

<표12-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세부사항

(n=19242)(단위: 분)

	가		나		다		라		마	
	M	SD	M	SD	M	SD	M	SD	M	SD
찬성 (n=10290)	6.61	25.05	1.55	10.16	0.91	12.74	1.50	18.26	0.48	7.57
반대 (n=8952)	7.38	28.11	1.69	10.57	0.65	9.21	1.38	18.23	0.50	7.75
t	-2.003 *		-0.939		1.614		0.486		-0.171	

(가: 미취학자녀/나: 초중고생/다: 배우자/라: 부모, 조부모/마: 그외가족)

(* $p<.05$)

3. 20세 이상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세 이상 직장 남성에게 대한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

과는 <표13>와 같다. 가정관리 영역은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증가하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이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는데,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에 비하여 낮은 학력을 가진 무학, 초등, 중등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하지 않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사별이나 이혼을 한 남성들이 가정관리 영역에 참여하는 범주에 들어갈 경향이 높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미혼의 남성이 참여하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아, 혼인상태가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 유무는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는데, 미취학자녀가 있는 남성이 없는 남성에 비하여 가족보살피기 참여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은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 참여여부를 결정짓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는데, 150-200만원 미만의 소득인 남성에 비하여 더 낮은 소득의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 참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인 남성과 비교했을 때 사무종사자 또는 서비스 판매 또는 농림어업 숙련업 종사자들의 가정관리 영역에 참여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봉급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직장지위도 가정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직장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노동의 참여가 저조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찬성하는 남성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참여하지 않는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세 이상의 직장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직업, 직장지위, 성별분업 인식, 주업일한시간이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미취학자녀 유무, 성별분업 인식, 주업일한시간임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 영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높아지고,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시간이 낮아지고 있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은 남성인 20대의 대부분이 미혼 남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결혼한 남성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시간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낮은 연령대인 20-30대 남성들이 혼인을 함에 따라 미취학자녀가 있는 남성들이 증가하게 되어 미취학자녀로 인한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적극적 참여에 기인하며, 높은 연령대인 50,60대 남성의 경우 대부분 가족들이 출가 후이기 때문에 미취학자녀나 특별히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일수록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고학력 남성의 경우 평등주의적 사고를 교육받을 기회가 많아 가사노동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함으로써 가사에 참여하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혼인상태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을 한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에 참여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전담하는 여성주부의 부재가 남성의 참여 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미혼인 남성이 혼인한 남성과는 달리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보살피기 영역 참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취학자녀는 가족보살피기 영역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미취학자녀로 인하여

남성의 참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의 경우 가정관리 영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은 하나의 경제적 자원이며, 소득이 낮다는 것은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 자원가설에 근거하여 가정에서의 가사참여 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업과 직장지위의 경우에도 가정관리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가정내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므로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함께 감소하는 것이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은 찬성하는 남성에 비하여 가정관리 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가사참여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대해 보수적인 사고관을 남성이 가사참여시간이 적다는 성역할관념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표13>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9242)

변수(괄호안은 준거집단)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B	S.E	Exp(B)	B	S.E	Exp(B)
연령		0.010 ***	0.002	1.010	-0.019 ***	0.003	0.981
교육수준(전문대이상)							
	무학	-0.362 **	0.125	0.696	-0.444 *	0.221	0.642
	초등	-0.130	0.071	0.878	-0.452 ***	0.116	0.636
	중등	-0.193 **	0.062	0.824	-0.355 ***	0.096	0.701
	고등	-0.063	0.040	0.939	-0.148 **	0.055	0.862
혼인상태(유배우)							
	미혼	0.008	0.58	1.008	-1.750 ***	0.120	0.174
	사별이혼	1.008 ***	0.089	2.740	-0.054	0.133	0.947
미취학자녀 (미취학자녀유)							
	미취학자녀무	-0.061	0.045	0.941	-1.800 ***	0.054	0.165
소득(150~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0.319 ***	0.053	1.375	0.082	0.082	1.085
	100~150만원미만	0.176 ***	0.047	1.192	0.019	0.066	1.019
	200~300만원미만	0.062	0.048	1.064	0.069	0.063	1.072
	300만원이상	0.023	0.057	1.023	-0.104	0.076	0.902

직업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사무종사자	0.143 *	0.056	1.153	-0.058	0.073	0.944
	서비스판매	0.158 **	0.058	1.171	-0.030	0.079	0.971
	농림어업 숙련업	0.431 ***	0.074	1.539	0.053	0.110	1.055
	조립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	0.054	0.049	1.055	-0.063	0.067	0.939
직장지위 (임금, 봉급근로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0.192 **	0.058	0.826	-0.143	0.078	0.86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0.034	0.044	1.035	-0.037	0.062	0.963
	무급가족종사자	-0.051	0.124	0.950	-0.165	0.209	0.848
주업일한시간		-0.008 ***	0.001	0.992	-0.011 ***	0.001	0.989
성별분업 인식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반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찬성	-0.097 **	0.030	0.908	-0.142 **	0.043	0.868
상수항		-0.465	0.103	0.628	1.445	0.149	4.244
-2log likelihood		25516.796			14535.003		
Chi-square		604.662			3309.960		

(*p<.05 **p<.01 ***p<.001)

V. 연구결과 2

1.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60세 미만 맞벌이 남성 7,010명과 비맞벌이 남성 5,636명을 대상으로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유무, 소득 등 일반적 특성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14>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20-60세미만의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40대가 46.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30대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맞벌이 남성의 경우 고등이 43.9%, 전문대이상 33.9%, 중등 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전문대 이상이 45.9%, 고등과 중등이 각각 43.8%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유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맞벌이 남성이 미취학자녀가 없었으며 (79.6%),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가 58.9%,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41.1%로 나타났다. 소득은 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200~300만원 미만이 26.3%, 100~150만원 미만이 25.0%, 150~200만원 미만이 2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200~300만원 미만이 30.8%, 300만원 이상이 23.6%, 150~200만원 미만이 20.1%의 순을 보였다. 직업의 경우 맞벌이 남성은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가 41.4%로 가장 높은 정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판매(18.5%),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17.9%), 사무종사

자(11.8%), 농림어업 숙련업(10.7%)의 순을 보였으며, 비맞벌이 남성은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가 41.4%,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가 30.4%, 사무종사자가 15.6%, 서비스 판매가 11.0%, 농림어업 숙련업이 1.5%의 순서로 보였다. 맞벌이와 비맞벌이 남성모두 임금, 봉급근로자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맞벌이: 54.7%, 비맞벌이: 71.4%).

맞벌이 남성의 평균 연령은 44.06세, 비맞벌이 남성의 평균연령은 41.31세로 나타났으며, 평균 주업일한시간은 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52.54시간,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51.33시간이었다.

<표14>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응답범주	맞벌이 (n=7010)		비맞벌이 (n=5636)	
		N	%	N	%
연령	20대	192	2.7	270	4.8
	30대	1768	25.2	2318	41.1
	40대	3282	46.8	1978	35.1
	50대	1768	25.2	1070	19.0
	60대 이상	•	•	•	•
	계	7010	100%	5636	100%
교육수준	무학	30	0.4	10	0.2
	초등	562	8.0	160	2.8
	중등	960	13.7	410	43.8
	고등	3080	43.9	2470	43.8
	전문대 이상	2378	33.9	2586	45.9
	계	7010	100%	5636	100%

미취학자녀 유무	미취학자녀 유	1428	20.4	2314	41.1
	미취학자녀 무	5582	79.6	3322	58.9
	계	7010	100%	5636	100%
소득	100만원 미만	894	12.8	338	6.0
	100~150만원 미만	1752	25.0	1096	19.4
	150~200만원 미만	1468	20.9	1132	20.1
	200~300만원 미만	1842	26.3	1738	30.8
	300만원 이상	1054	15.0	1332	23.6
	계	7010	100%	5636	100%
직업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1252	17.9	1716	30.4
	사무종사자	828	11.8	882	15.6
	서비스 판매	1294	18.5	620	11.0
	농림어업 숙련업	752	10.7	82	1.5
	조립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	2884	41.1	2336	41.4
	계	7010	100%	5636	100%
직장지위	임금, 봉급근로자	3832	54.7	4024	71.4
	고용원을 둔 사업주	846	12.1	680	12.1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276	32.5	928	16.5
	무급가족종사자	56	0.8	4	0.1
	계	7010	100%	5636	100%
변수명	MEAN	SD	MEAN	SD	
연령	44.06	7.6735	41.31	8.2510	
주업일한시간	52.54	15.8474	51.33	13.8629	

2) 연구대상자의 가사노동시간

20-60세 미만 맞벌이와 비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15>에 제시되어있다. 맞벌이 남성이 직장에서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2.54시간이며,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51.33시간이다.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전체 20대 이상 직장 남성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좀 더 긴 편이나, 역시 하루 평균 약 10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34분정도이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의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가정관리 영역이 가족보살피기보다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고 있었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이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비하여 하루 평균 10분정도의 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 및 정리, 집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의 참여시간 정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역시 가정관리 영역에 조금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비맞벌이 남성이 참여하는 정도는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청소 및 정리, 집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5>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활용 형태

	맞벌이 남성 (n=7010)	비맞벌이 남성 (n=5636)
	평균시간	평균시간
주업일한시간(시간)	52.54	51.33
가사노동활용시간	34.78	34.22
가정관리(소계)	22.48	17.43
음식준비 및 정리	4.43	2.07
의류관리	1.04	0.44
청소 및 정리	6.69	4.74
집관리	4.98	3.95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4.29	5.59
가정경영	0.89	0.50
기타 가사일	0.16	0.14
가족보살피기(소계)	12.30	16.79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6.14	12.71
초중고생 보살피기	2.55	1.75
배우자 보살피기	1.05	0.43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2.07	1.40
그외 가족 보살피기	0.49	0.50

2.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영역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t-test를 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맞벌이 남성이 평균 22.49분,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 평균 11.74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맞벌이 남성이 비맞벌이 남성에게 비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정관리 영역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t=6.625$, $p<.05$). 부인이 취업한 맞벌이 남성은 부인의 이중역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정관리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맞벌이 남성은 평균 12.29분,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 평균 16.8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가정관리 영역과는 반대로 비맞벌이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인이 취업을 하지 않은 비맞벌이 남성은 가정에서의 시간을 가정관리 영역에 보내기 보다는 가족보살피기에 시간을 더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n=7010 / 비맞벌이: n=5636)(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MEAN	SD	MEAN	SD
맞벌이(n=7010)	22.49	44.97	12.29	39.74
비맞벌이(n=5636)	17.44	40.62	16.88	41.54
t	6.625***		-6.295***	

(***p<.001)

1)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60세 미만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17>에 제시하였다.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20대와 50대의 맞벌이 남성이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3.563$, $p<.05$).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50대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시간이 평균 18.20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20대 비맞벌이 남성이 평균 17.59분, 30대 비맞벌이 남성이 평균 17.51분, 40대 비맞벌이 남성이 평균 16.93분의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일원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6.629$, $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0대 맞벌이 남성의 경우의 참여시간이 평균 24.06분으로 20대 맞벌이 남성의 평균 14.84분과 40,50대의 맞벌이 남성보다 많은 참여시간을 보여주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30대 남성은 결혼 후 미취학자녀를 갖는 시기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보살피기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비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23.176$, $p<.05$).

20대와 30대의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시간은 40대와 50대 남성의 참여시간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 영역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모든 연령층의 남성이 비슷한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부분 가정관리 보다는 가족보살피기에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30대 남성의 경우 자녀들 혹은 그 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40,50대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녀들의 분가와 그 외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연령대로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표17>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n=7010 / 비맞벌이: n=5636)(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M	D	M	D	M	D	M	D
20대								
(맞:n=192)	25.73	a	17.59	a	14.84	b	30.93	b
(비:n=270)								
30대								
(맞:n=1768)	21.83	a	17.51	a	24.06	c	27.61	b
(비:n=2318)								
40대								
(맞:n=3282)	21.19	a	16.93	a	9.36	a	8.70	a
(비:n=1978)								
50대								
(맞:n=1768)	25.23	a	18.20	a	5.68	a	5.20	a
(비:n=1070)								
F	3.563*		0.231		76.629***		123.176***	

(*p<.05 ***p<.001)

2)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60세 미만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18>과 같다. 맞벌이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 시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546$, $p<.05$). 가정관리 영역에서의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시간은 맞벌이 남성이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4.726$, $p<.05$). 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25.375$, $p<.05$). 전문대 이상 교육수준의 맞벌이 남성의 경우 평균 18.37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교육수준을 지닌 맞벌이 남성의 평균 5.12분과 중학교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는 맞벌이 남성의 평균 6.32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6.159$, $p<.05$). 전문대 이상 교육을 받은 비맞벌이 남성의 평균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은 20.41분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에 비하여 무학의 비맞벌이 남성은 참여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들은 가족보살피기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

비맞벌이 남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 참여시간은 감소하

며,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원이 가사노동의 교환수단 혹은 권력의 근원으로 작용된다는 상대적 자원가설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전통적으로 여성의 과업이라고 간주되어지던 가정관리 영역에서의 참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18>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맞: n=7010/비: n=5636)(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M	D	M	D	M	D	M	D
무학								
(맞: n=30)	9.00	a	58.00	b	9.33	ab	0.00	a
(비: n=10)								
초등								
(맞: n=562)	26.35	b	22.69	a	5.12	a	6.56	ab
(비: n=160)								
중등								
(맞: n=960)	18.84	ab	14.73	a	6.32	a	5.22	ab
(비: n=410)								
고등								
(맞: n=3080)	21.23	b	16.19	a	10.79	ab	15.86	ab
(비: n=2470)								
전문대이상								
(맞: n=2378)	24.85	b	18.58	a	18.37	b	20.41	b
(비: n=2586)								
F	5.546	***	4.726*		25.375***		16.159***	

(*p<.05 ***p<.001)

3)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60세 미만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9>과 같다. 가정관리 영역은 미취학자녀 유무가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였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에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이 미취학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하여 더 높은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맞벌이: $t=16.415$, $p<.05$), (비맞벌이: $t=22.475$, $p<.05$).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시간은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에 맞벌이 남성은 하루 평균 31.79분, 비맞벌이 남성은 평균 32.69분으로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 모두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참여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표19>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맞: $n=7010$ /비: $n=5636$)(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M	SD	M	SD	M	SD	M	SD
미취학자녀유 (맞: $n=1428$) (비: $n=2314$)	21.56	44.31	17.40	37.69	31.79	53.78	32.69	53.17
미취학자녀무 (맞: $n=5582$) (비: $n=3322$)	22.73	45.14	17.47	42.54	7.30	33.48	5.87	25.77
t	-0.876		-0.066		16.415***		22.497***	

(*** $p<.001$)

4)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60세 미만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20>과 같다.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소득 100만원 미만인 맞벌이 남성들이 평균 28.59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다. 150~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지닌 맞벌이 남성이 평균 19.60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6.715, p<.05$). 소득에 따른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 참여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의 영역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맞벌이 남성이 평균 15.36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100~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맞벌이 남성이 평균 9.51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F=4.972, p<.05$). 비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비맞벌이 남성이 평균 20.68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300~500만원미만의 비맞벌이 남성이 평균 11.22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1.797, p<.05$).

종합적으로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시간은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저소득과 고소득의 가정관리시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20>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소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맞: n=7010/비: n=5636)(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M	D	M	D	M	D	M	D
~100만원미만 (맞: n=894) (비: n=338)	28.59	b	19.23	a	11.64	a	11.75	a
100~150만원미만 (맞: n=1752) (비: n=1096)	23.29	a	17.90	a	9.51	a	17.44	b
150~200만원미만 (맞: n=1468) (비: n=1132)	19.60	a	14.88	a	12.38	ab	18.70	b
200~300만원미만 (맞: n=1842) (비: n=1738)	20.59	a	18.48	a	15.36	b	20.68	b
300만원 이상 (맞: n=1054) (비: n=1332)	23.35	a	17.44	a	11.96	a	11.22	a
F	6.715**		1.610		4.972***		11.797***	

(**p<.01 ***p<.001)

5)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21>에 제시되어 있다.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은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남성이 평균 26.34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비스 판매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남성이 평균 20.08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다($F=5.754, p<.05$).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평균 21.89분으로 참여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인 비맞벌이 남성의 평균은 16.38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F=3.379, 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사무종사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남성이 평균 19.11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인 맞벌이 남성이 평균 9.11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8.654, p<.05$). 비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결과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640, p<.05$). 가정관리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무종사자인 비맞벌이 남성이 평균 21.43분으로 참여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인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시간이 평균 14.56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 시간, 가족보살피기 시간의 차이는 맞벌이 가정의 남성에게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비맞벌이 남성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직업은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표21>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맞: n=7010/비:n=5636)(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M	D	M	D	M	D	M	D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맞: n=1252) (비: n=1716)	25.45	b	16.56	a	18.00	b	17.60	a
사무종사자 (맞: n=828) (비: n=882)	25.12	b	21.89	a	19.11	b	21.43	a
서비스판매 (맞: n=1294) (비: n=620)	20.08	a	17.15	a	11.21	a	17.29	a
농림어업 숙련업 (맞: n=752) (비: n=82)	26.34	b	20.49	a	9.31	a	15.73	a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 (맞: n=2884) (비: n=2336)	20.53	a	16.38	a	9.11	a	14.56	a
F	5.754***		3.379*		18.654***		4.640*	

(*p<.05 ***p<.001)

6)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참여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22>와 같다. 먼저 직장지위에 따른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시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5.775,

$p < .05$).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평균 53.04분으로 임금, 봉급근로자의 남성과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남성,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비하여 높은 참여시간을 보였다. 가정관리 영역에 대한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시간은 무급가족종사자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임금, 봉급 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은 하루 평균 50.00분으로 다른 직장지위의 남성들에 비하여 높은 참여시간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이 다른 직장지위의 남성들보다 가정관리 영역의 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본다. 20세~60세 미만 맞벌이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참여시간은 임금, 봉급 근로자 남성의 경우 평균 11.47분, 고용원을 둔 사업주 남성의 경우는 평균 11.11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남성의 경우 평균 8.98분, 무급가족종사자 남성의 경우 평균 15.71분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임금, 봉급근로자인 비맞벌이 남성이 평균 18.73분으로 가장 높은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고용원을 둔 사업주인 비맞벌이 남성이 평균 9.47분으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무급가족종사자 남성은 맞벌이와 비맞벌이 남성 모두 다른 남성들에 비하여 가정관리 영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 역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은 다른 남성들에 비하여 가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22>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직장지위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맞: n=7010/비: n=5636)(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M	D	M	D	M	D	M	D
임금, 봉급 근로자 (맞: n=3832) (비: n=4024)	23.94	a	18.40	a	11.47	a	18.73	a
고용원을 둔 사업주 (맞: n=846) (비: n=680)	16.24	a	12.09	a	11.11	a	9.47	a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맞: n=2276) (비: n=928)	21.62	a	17.06	a	8.98	a	14.30	a
무급가족종사자 (맞: n=56) (비: n=4)	53.04	b	50.00	b	15.71	a	12.50	a
F	15.775***		5.585**		9.511***		11.140***	

(**p<.01 ***p<.001)

7)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20-60세 미만 맞벌이남성과 비맞벌이 남성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23>와 같다.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남성이 찬성하는 남성에 비해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60, p<.05$). 가정관리 영역에 대한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 시간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참여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비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대한 참여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것에 찬성하는 남성은 평균 15.55분, 반대하는 남성은 평균 19.21분으로 반대하는 남성이 더 높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3.075, p<.05$).

맞벌이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 영역에서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의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역할인식이 타고난 요인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성역할관념가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관념가설이 가정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참여시간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는 비맞벌이 남성의 참여시간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 가설이라 사료된다.

<표23>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에 따른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맞: n=7010)(비: n=5636)(단위: 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M	SD	M	SD	M	SD	M	SD
찬성								
(맞: n=3360)	21.00	45.34	17.74	40.92	11.55	38.39	15.55	39.41
(비: n=3590)								
반대								
(맞: n=3650)	23.86	44.58	16.92	40.09	12.97	40.93	19.21	44.95
(비: n=2046)								
t	-2.660**		0.726		-1.498		-3.075*	

(*p<.05 **p<.01)

3.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에게 대한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24>와 같다. 연령, 교육수준과 미취학자녀 유무는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에게 비하여 낮은 학력수준인 초등과 중등수준의 남성들이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참여하는 범주에 속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미취학자녀가 없

는 맞벌이 남성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성과 비교하여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맞벌이 남성들에 비하여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남성들이 가정관리 영역에서 참여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위공무원과 전문가인 남성은 조립종사자 및 기타종사자에 비교해서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참여확률이 더 높았다. 직업지위는 가정관리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임금, 봉급근로자와 비교해서 고용원을 둔 사업주인 남성이 참여범주에 드는 경향이 낮았다. 맞벌이 남성의 주업일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정관리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분업에 찬성하는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는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맞벌이 남성과 비교하여 낮았다.

맞벌이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 직업,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 성별분업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자녀 유무, 직업,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덜 참여하고 있었는데 20세 이상의 직장남성과 마찬가지로 교육받는 기간이 길수록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불공평인지로 인하여 가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맞벌이 남성들의 성별분업 인식이 평등할수록 가정관리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미혼 남성들도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와 사회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20세 이상의 직장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남성들도 주업일한시간이 적을수록 가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입노동시간이 가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24>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7010)

변수 (괄호안은 준거집단)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B	S.E	Exp(B)	B	S.E	Exp(B)
연령		-0.002	0.004	0.998	-0.029 ***	0.006	0.971
교육수준 (전문대이상)							
	무학	-0.708	0.423	0.493	-0.311	0.633	0.733
	초등	0.136	0.115	1.146	-0.546 **	0.188	0.579
	중등	-0.114	0.096	0.893	-0.468 **	0.144	0.626
	고등	0.027	0.066	1.027	-0.158	0.084	0.854
미취학자녀 (미취학자녀유)							
	미취학자녀무	-0.033	0.071	0.967	-1.666 ***	0.081	0.191
소득 (150~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0.271 **	0.091	1.312	0.112	0.129	1.119
	100~150만원미만	0.126	0.073	1.134	-0.045	0.100	0.956
	200~300만원미만	0.013	0.073	1.013	0.104	0.096	1.110
	300만원 이상	0.021	0.088	1.022	-0.006	0.114	0.994

직업(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사무종사자	-0.070	0.094	0.933	-0.218	0.113	0.804
	서비스판매	-0.017	0.094	0.984	-0.214	0.119	0.808
	농림어업 숙련업	0.153	0.118	1.166	-0.065	0.162	0.937
	조립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	-0.242 **	0.084	0.785	-0.327 **	0.106	0.721
직장지위 (임금, 봉급근로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0.248 **	0.086	0.780	-0.005	0.111	0.99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0.042	0.068	0.959	-0.132	0.094	0.876
	무급가족종사자	0.404	0.294	1.498	0.096	0.383	1.100
주업일한시간		-0.009 ***	0.002	0.991	-0.011 ***	0.002	0.990
성별분업 인식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반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찬성	-0.159 **	0.049	0.853	-0.068	0.066	0.934
상수항		0.442	0.192	1.556	1.964	0.260	7.127
-2log likelihood		9425.788			5972.771		
Chi-square		130.624			1037.322		

(*p<.05 **p<.01 ***p<.001)

2)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60세 미만의 비맞벌이 남성에 대한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5>과 같다. 연령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참여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가정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전문대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비맞벌이 남성에 비하여 중등과 고등수준의 학력을 지닌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가 낮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 유무는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남성과 비교하면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남성이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참여경이 낮은 것을 보였다.

소득과 직업은 가정관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직장지위와 주업일한시간은 가정관리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20대 이상의 직장 남성과 20-60세미만의 맞벌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주업일한시간이 길수록 남성들의 가정관리 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는 낮아지고 있었다. 성별분업에 찬성하는 비맞벌이 남성이 반대하는 남성에 비하여 가족보살피기에 대해 참여확률이 낮았다.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소득, 직업,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미취학자녀유무,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은 남성의 가사참여 시간이 긴 것은 혼인 후에 미취학자녀가 있는 시기로 자녀 돌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 생각해볼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은 남성의 참여시간이 적은 것은 자녀출가 후에 특별히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맞벌이 남성이 초중고등의 학력을 가진 남성에 비하여 가정관리 영역에 더 참여하는 것은 맞벌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의 불공평함을 인지하여 가사참여 시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이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 참여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직장노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와는 달리 비맞벌이 남성은 직장노동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 가정에서의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주업일한시간 역시 가사노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주업일한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업일한시간이 짧을수록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표25>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636)

변수 (괄호안은 준거집단)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B	S.E	Exp(B)	B	S.E	Exp(B)
연령		-0.007	0.005	0.993	-0.039 ***	0.006	0.962
교육수준(전문대이상)							
	무학	0.669	0.663	1.953	-19.649	12108.8 24	0.000
	초등	-0.229	0.194	0.795	-0.223	0.287	0.800
	중등	-0.339 *	0.139	0.713	-0.245	0.196	0.783
	고등	-0.243 **	0.073	0.784	-0.120	0.085	0.887
미취학자녀 (미취학자녀유)							
	미취학자녀무	-0.063	0.075	0.939	-1.710 ***	0.090	0.181
소득(150~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0.236	0.138	1.267	-0.058	0.175	0.944
	100~150만원미만	0.288 **	0.092	1.333	0.030	0.106	1.030
	200~300만원미만	0.191 *	0.085	1.210	0.067	0.095	1.069
	300만원 이상	0.092	0.095	1.096	-0.108	0.112	0.898

직업(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사무종사자	0.162	0.108	1.182	-0.046	0.106	0.955
	서비스판매	0.306 **	0.108	1.296	-0.068	0.130	0.934
	농림어업 숙련업	0.598 *	0.126	1.495	0.368	0.306	1.445
	조립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	0.173 *	0.254	2.022	0.035	0.101	1.036
직장지위 (임금, 봉급근로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0.338 **	0.099	0.713	-0.494 ***	0.126	0.61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0.033	0.085	0.967	-0.012	0.105	0.988
	무급가족종사자	0.335	1.010	1.398	-0.557	1.281	0.573
주업일한시간		-0.014 ***	0.002	0.986	-0.011 ***	0.003	0.990
성별분업 인식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반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찬성	0.013	0.060	1.013	-0.145 *	0.070	0.865
상수항		0.211	0.223	1.234	2.013	0.282	7.489
-2log likelihood		7044.797			5262.055		
Chi-square		108.076			1153.337		

(*p<.05 **p<.01 ***p<.001)

VI. 결론 및 제언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정도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가정구조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인식의 변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던 가사노동은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일이 아니며 남녀가 함께 해야 하는 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을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노동의 참여와 참여증대를 위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들의 가사노동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20대 이상 직장남성과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으로 분류하여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세부영역은 통계청의 분류 기준에 따라 가정관리 영역은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로 분류하였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보살피기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일원분산분석,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영역별 시간사용은 어떠하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간의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은 어떠한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사용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근거한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이상 직장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34.05분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관리 영역은 22.73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약 11.32분으로 가정관리 영역에서 약10분의 시간을 더 보내고 있었다. 20대 이상의 직장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이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사별 혹은 이혼을 하고, 미취학자녀가 없으며, 소득이 작을수록,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인 남성인 경우 참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영역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정관리 영역의 참여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것은 사회경제적, 물질적으로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사노동을 덜 한다는 상대적 자원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세 이상 직장 남성 중 사별이나 이혼을 한 남성의 경우 참여시간이 길었는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가사일을 남성이 스스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경우, 30대 남성의 참여가 가장 컸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자녀가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

록, 사무종사자이며, 임금, 봉급 근로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참여시간이 길고, 미혼 남성은 다른 남성들에 비해 참여시간이 짧았는데, 미혼 남성이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자녀가 있는 경우 참여 시간이 길었는데,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남성의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0대 이상 직장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직업, 직장지위, 성별분업 인식, 주업일한시간이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미취학자녀유무, 성별분업 인식, 주업일한시간이었다.

셋째,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34.78분, 비맞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는 시간은 34.22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 22.48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12.30분의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비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관리 영역에 17.43분, 가족보살피기 영역에 16.79분의 참여시간을 보였다. 맞벌이 남성이 가정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은 청소 및 정리였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였다. 비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의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에서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보였고,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참여시간을 보였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서 20대와 50대의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은 남성보다 낮은 남성이,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며, 무급가족종사자이며,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이 참여시간이

길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2,30대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저소득에 비해 고소득이며,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었다.

맞벌이 무급가족종사자 남성은 임금, 봉급근로자인 남성과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남성,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비하여 높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었는데, 가정내에서의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우위가 낮음이 가사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 자원가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성들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높은 참여시간을 보이고 있는데, 혼인 후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미취학자녀로 인하여 가정에서 자녀 돌봄 시간 증가에 따라 가족보살피기의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취학자녀 유무가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참여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분업에 대해 반대하는 맞벌이 남성은 성역할인식에 대해 평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가 가사노동참여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비맞벌이 남성은 가정관리 영역에서 20대이며,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이며,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의 참여시간이 길었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은 2,30대이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으며, 저소득에 비해 고소득인 남성이, 사무종사자이며, 임금, 봉급근로자인 남성이,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남성일수록 참여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2,30대의 비맞벌이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참여시간은 4,50대 남성에 비하여 길게 나타났는데, 스스로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남성의 참여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 직

업,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 성별분업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유무, 직업,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다. 비맞벌이 남성의 가정관리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소득, 직업,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살피기 영역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미취학자녀 유무, 직장지위, 주업일한시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남성 집단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남성 노인이나 이혼, 사별을 한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인 남성은 다른 남성들에 비하여 많은 참여시간을 보여준다. 이들은 전통적인 한국가정에서 가사노동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학교 교육에서도 가사노동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대부분 가사노동에 대한 준비 없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갑자기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과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정부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이 평등적일수록 가사에 많이 참여한 결과는 남성에게 가사노동에 대한 평등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확대에 효과적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학교 교육을 통한 남성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가사수행 방법을 습득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남성은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해 가사참여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 자녀로 인하여 남성의 가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제와 같은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남성들을 위하여 정부와 직장에서의 육아지원과 부모역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주업노동시간이 긴 남성은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남성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도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직장에서의 지원과 변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가족주기별, 생애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남성이 가사노동참여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듯이 노인연령층의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남성이 가사노동참여가 적다고 판단하기 전에 가족주기별 남성의 참여시간을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혼남성의 경우 부부간의 비교를 통한 가사노동분담에 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성을 포함하여 서로간의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겠었다.

둘째, 본 연구결과 20대 이상의 직장남성, 맞벌이 남성, 비맞벌이 남성에 따라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는 가사노동 참여 연구시에 남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 자료로 사용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개개인에 대한 24시간동안의 객관적인 생활시간만이 조사되어있는 관계로 주관적인 의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내용을 포함한 연구가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가족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기은광 · 이기영(200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5), 61-75.
- 김선미 · 장상옥(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질적 연구-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3), 17-29.
- 김은경(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25-43.
- 김외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태도(I), 대한가정학회지, 19(4), 55-64.
- 문숙재(1990). 가정생산-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신광출판사.
-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문숙재(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 문숙재 · 허경옥 · 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 문숙재 · 윤소영(2000). 결혼과 노동, 교문사.
- 박주희 · 이숙현(1995). 취업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성별 분리 정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6, 83-97.
- 석드보라 · 이기영(1999).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저항

감, 한국가정관리학회, 17(3), 171-185.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5, 239-287.

송혜림(2000).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실태, 생활과학논문집, 2(1), 103-115.

신소영(1996).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자원이론, 시간가용설 가설, 성 역할 가설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승주(2007).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정책,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1-66.

유희숙·두경자(1999).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23-134.

윤소영(2007). 한국인의 여가생활: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발표, 국민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29-64.

위금영(1992). 청소년의 가사노동 가치 의식에 따른 가사노동의 분담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구희(1990). 어머니와 남·녀학생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대한 비교연구: 경주지구 주부 및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영·구혜령(1999).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67-178.

이기영·김외숙(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이기영 · 송혜림 · 이승미 · 민순선 · 서지원(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97-111.
- 이기영 · 이연숙 · 김외숙 · 조희금외(2001).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총서7.
- 이기영 · 조희금 · 김외숙 · 이연숙 · 이승미 · 홍두승 · 조홍식 · 김유경 · 김주희(2006).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4(5), 205-222.
- 이다윤(2002).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결혼만족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1994). 맞벌이 부부의 가사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14(1), 1-34.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지, 3(1), 23-31.
- 이연숙 · 이순형 · 유가효 · 조재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제 1호.
- 이영미(1996).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들의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16,129-139.
- 이정우 · 강기연(2004). 맞벌이부부의 공평성인지 · 인사결정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9), 137-152.
- 조미환 · 임정빈(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69-386.
- 조미환(1998).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5집, 5-20.

조성은 · 문숙재(1998).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35-47.

조성은(1998).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로 ·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채로(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논문.

채옥희(2004). 가사노동과 여성복지, 경춘사.

채옥희(2003). 신세대 주부의 가사노동 관리자유형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과학회지, 6(1), 57-66.

채옥희(200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5-225.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혜(2005).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직업만족도-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10), 55-68.

최정혜(2006).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4(6), 47-58.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Becker, 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Becker, G.S.(1974).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s11-s26.

- Beutler, I.F. & Owen, A.J. (1980), "New Perspective on Home Production—A Conceptual View", *The Household as Producer—A Look beyond the Market*, Colien Heffern Proceedings of a Workshop Sponsored by the Family Economics Home Management Section of the AHEA.
- Blair, S.L., & Lichter, D.T. (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Brayfield, A.A. (1992). Employment Resources and Housework in Canada (1992),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
- Farkas, G. (1976). Education, wage rates, and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husband and w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473–484.
- Hiller, D.V. (1984). Power dependence and division of family work, *Sex role*, 10, 1003–1019.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 Maret, E., Finlay, B. (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 357–364.
- Walker, Kathryn & Woods, Margaret E. (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AHEA.
- Yogev, S., & Brett, J. (1985).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609-618.

동아일보(2004년 2월 26일자). [여성·가정] '슈퍼우먼' 뒷줄 '작은 남편' -▼미국엔 '트로피 남편'▼.

동아일보(2004년 6월 28일자). [주5일근무제 본격시행]<2>역시 가족이다.

여성가족부(2005). 가족실태조사.

이재철(2007.10.21). 서울경제, '전업주부 남성' 15만명: 육아 5,000명·가사 14만6,000명... 3년새 42% 늘어.

조선일보(2004년 1월 14일자). [여성을 읽어야 한국이 보인다] '트로피 남편'늘고 있다.

통계청(2005).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

Abstract

A study on the Men'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Kim, Hee Kyung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n'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tasks and to analyze empirically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as part of the 2004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studied the amount of men'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Men are defined as person age over 20 and samples are classified threes groups as "working men(age over 20s)", "the husbands of dual-earner couples(20s to 50s)", and "the husbands of single-earner couples(20s to 50s)". The size of total sample is 19,242.

Household labor is classified as home management and the family ca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are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zed by one-way anova, t-test,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en of over 20 age participated in household labor(i.e., home management and the family care) on the average for 34 minutes. They participated more home management than the family care on the average for ten. They spent more time in cleaning & arranging in home management and child care in family care.

Second, the age, an academic career, the state of marriage, income, an occupation, a status in work place, recognition of sex role and the hours of labor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ir participation in home management. The age, an academic career, the state of marriage, a preschool child, recognition of sex role and the hours of labor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ir participation in family care.

Third, the husbands of dual-earner couples participated in household labor on the average for 34.78 minutes and the husbands of single-earner couples participated in household labor on the average for 34.22 minutes. The husbands of dual-earner couples spent more time in cleaning & arranging in home management and child care in family care and the husbands of single-earner

couples spent more time in purchase in home management and child care in family care.

Fourth, income, an occupation, a status in work place, recognition of sex role and the hours of labor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 husbands of dual-earner couples' participation in home management. The age, an academic career, a preschool child, an occupation and the hours of labor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ir participation in family care.

For the husbands of single-earner couples, an academic career, income, an occupation, a status in work place and the hours of labor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ir participation in home management. The age, a preschool child, a status in work place and the hours of labor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ir participation in family care.

<부록1> 200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개인 유지	수면	참여 및 봉사활동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식사 및 간식		참여활동
	개인관리		자원봉사
	건강관리(의료적)		교제활동
	기타 개인유지		일반인의 학습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교제 및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무급가족 종사일(농림어업제외)		종교활동
	농림어업의 무급가족 종사일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구직활동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		기타 여가 관련 활동
	학습		학생의 정규수업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대분류 출·퇴근	
학습관련 물품구입		대분류 그외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대분류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의류관리	대분류 가정관리 관련 이동	
	청소 및 정리	대분류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집 관리	대분류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중분류 교제활동 관련 이동	
	가정경영	중분류 일반인의 학습 관련 이동	
	기타 가사일	중분류 그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기타	기타이동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이동하기위해 기다리기
	배우자 보살피기	집안 집밖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외 기타
	그외 가족 보살피기		집밖: 자신의 집밖
		집안: 사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주된 생활공간	



승인번호 제10152 호

2004 생활시간조사

시간일지 작성일

9월 일 (요일 ~ 9월 일 (요일

이 조사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시간활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그 결과는 문화·교통 및 가정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작성기관: 통계청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성실한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구주 성명	가구당 조사표부수	조사대상자수	조사된 가구원수
<input type="text"/>	총 (<input type="text"/> 부 중 1부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I

가구관련사항

가구를 대표하는 한 분만 기입해 주십시오

1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집입니까, 셋집입니까?

- 1 자기집
- 2 전세
- 3 월세, 사글세, 보증부 월세
- 4 무상주택, 사택

2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 또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 가구원 중 누구라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 1 있음
- 2 없음

항목 설명

- 자 기 집 : 실제 가구주 또는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 전 세 : 임대기간동안 집주인에게 이자없이 일정금액을 맡겼다가 이사갈 때 되돌려 받는 형태
- 월 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
- 사 글 세 : 집주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그 금액에서 정해진 월세를 공제하는 형태
- 보증부월세 : 집주인에게 주택임대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임대기간동안 이자없이 맡기고 일부는 월세로 매월 지불하는 형태
- 무상주택 : 주택임대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는 형태
- 사 택 : 관공서나 회사소유의 주택으로 관리비 정도의 실비만을 내고 사는 형태

3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용 면적은 얼마입니까?

평

- 평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1평=3.3058m²)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기입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평형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4

택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1쪽 '개인관련사항'으로

4-1

있다면 어떤 용도의 차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1 자가용 대

2 영업용 대

- 가구에서 보유하여 사용중인 자동차를 사용용도별로 대수를 기입합니다.
- 자동차가 「자가용」과 「영업용」을 겸할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쪽에만 대수를 기입합니다.



'가구관련사항'이 끝났으므로 1쪽 '개인관련사항'으로 가세요.

지난 1주간 (면접조사일 전날까지의 지난 7일간)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7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

- 1 일을 했음 → **8** 항목으로
- 2 일을 하지 않았음 → 4쪽 '시간안지'로

- 「일을 했음」이란 수입이 되는 일을 조금 (시간 이상)이라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일시휴직자, 아르바이트 포함
 - 무급가족 종사일(일정한 보수없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포함

8 지난 1주간 주된 일(주업) 외에 수입이 되는 다른 일(부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9 지난 1주간 주업과 부업으로 각각 몇 시간 일하십니까?

- 1 주업 : 시간
- 2 부업 : 시간

- 지난 1주간 실제로 일한 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점심·저녁식사, 휴식, 통근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하고 일과 관련된 초과근무시간은 포함합니다.
 - 업무시간 중 사적인 일을 한 시간은 제외됩니다.
 -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무급가족관련 일은 포함하나, 집안일(가사)이나 무보수 봉사활동 등에 종사한 시간은 제외됩니다.

10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 직장·사업체명 ()
- 주된 사업 내용 ()

11 무슨 일을 하십니까?

-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 부서 및 직책 ()

12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1 임금·봉급 근로자
 - 2 고용원을 둔 사업주
 -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4 무급가족 종사자
- **13** 항목으로
- **15** 항목으로

항목 설명

- **임금·봉급 근로자**
국가, 공공기관 및 단체, 회사, 민간기업, 사회복지센터, 교회, 조합 또는 기타 비영리 기관 등에서 일하고 월급, 봉급, 연봉, 일당, 봉사료, 샅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는 사람을 말하며 직위와는 관계 없음
- **고용원을 둔 사업주**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자 또는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무급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없이 자기가족(동일가구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13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 | |
|--------------------|--------------------|
|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 100만원 미만 |
| 3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4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 5 200만원 ~ 250만원 미만 | 6 250만원 ~ 300만원 미만 |
| 7 300만원 ~ 350만원 미만 | 8 350만원 ~ 400만원 미만 |
| 9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10 500만원 이상 |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난 1년동안 (2003. 9. 1. ~ 2004. 8. 31.)의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 구간의 번호에 0표 합니다.

14 정기적으로 쉬는 날은 며칠입니까?

- | | |
|---------------------|-------------|
| 1 일주일에 하루 | 2 토요일 격주 휴무 |
| 3 일주일에 이틀 (주5일제 근무) | 4 매 2주에 하루만 |
| 5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쉬 | 6 기 타 () |

항목 설명


- 일주일에 하루 :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고 일요일에 쉬는 경우도 포함
- 토요일 격주 휴무 : 매 2주마다 3일씩 쉬는 경우
- 일주일에 이틀 : 주 5일제 근무하는 경우
- 매 2주에 하루만 : 일주일에 하루를 매 2주 단위로 쉬는 경우
- 정해진 휴일없이 수시로 쉬 : 아르바이트종사자, 자영자, 일용근로자 등 정해진 휴일이 따로 없는 경우
- 기타 : 정기적으로 쉬는 날은 있으나, 1 ~ 4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격일 근무하는 경우 등

15 평소 업무가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 | | | |
|-----------|---|--------------|
| 1 예, 항상 | } | → |
| 2 예, 가끔 | | |
| 3 아니오, 거의 | } | → 4쪽 '시간알지'로 |
| 4 아니오, 전혀 | | |

1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것 하나에 0표 해 주십시오)

- | |
|-----------------------|
| 1 업무량이 많아서 |
| 2 일이 힘들어서 |
| 3 근무여건(시설, 환경 등)이 나빠서 |
| 4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
| 5 건강이 좋지 않아서 |
| 6 기 타 () |

 '개인관련사항'이 끝났으므로 4쪽 '시간알지'로 가세요.

시간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1 10분단위로 일기 쓰듯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만약, 10분내에 여러 가지 행동을 연속해서 했다면, 가장 긴 행동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기입합니다.
- ▶ 만약, 같은 행동을 10분 이상 계속 했다면, 시작한 시간의 기입칸에만 행동을 기입하고 끝난 시간까지는 화살표시(↓)를 해 주십시오.

2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했다면,

- ▶ 주로 한 행동을 “주행동”칸에 기입하고, 그외 부차적인 행동을 “동시행동”칸에 기입합니다.

예)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시청했다면,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주행동”으로 다른 하나는 “동시 행동”으로 나누어 둘다 기입합니다.

3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무엇으로) 이동했는지도 기입해 주십시오. (예 : 걸어서 출근)
- ▶ 다른 사람과 같이 행동한 경우는 누구와 함께 했는지도 기입해 주십시오. (예 : 남편과의 식사)

< 맞벌이 부부인 아름이 엄마의 예 >

9월 7 일 화 요일

첫째날

아침 6시 ~ 아침 9시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을 시간은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
	아침 6시	수면				
037	10					037
038	20					038
039	30					039
040	40	세수하고 머리감기				040
041	50	아침식사준비		라디오 듣기		041
042	7시					042
043	10	아름이 깨우기				043
044	20	가족과 아침식사		TV 뉴스보기		044
045	30					045
046	40	설거지				046
047	50	아름이 씻기기				047
048	8시					048
049	10	화장하고 옷입기				049
050	20					050
051	30	아름이 어린이집에 맡기러 감(걸어서)				051
052	40					052
053	50	출근(마을버스로)		신문보기		053
054	아침 9시	출근(지하철로)				054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주행동	집안에 있는 시간은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	
	≈				≈	
	≈				≈	
091	≈	≈			≈	091
		≈				
092		≈				092
		≈				
093		≈				093
		≈				
094		≈				094
		≈				
095		≈				095
		≈				
096		≈				096
		≈				
097		≈				097
		≈				
098		≈				098
		≈				
099		≈				099
		≈				
100		≈				100
		≈				
101		≈				101
		≈				
102		≈				102
		≈				
103		≈				103
		≈				
104		≈				104
		≈				
105		≈				105
		≈				
106		≈				106
		≈				
107		≈				107
		≈				
108		≈				108
		≈				
109		≈				109
		≈				
110		≈				110
		≈				
111		≈				111
		≈				
112		≈				112
		≈				
113		≈				113
		≈				
114		≈				114
		≈				
115		≈				115
		≈				
116		≈				116
		≈				
117		≈				117
		≈				
118		≈				118
		≈				
119		≈				119
		≈				
120		≈				120
		≈				
121		≈				121
		≈				
122		≈				122
		≈				
123		≈				123
		≈				
124		≈				124
		≈				
125		≈				125
		≈				
126		≈				126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만 10세 이상 가구원(1994년 8월 31일까지 출생자)은 기입해 주십시오

9월 ○ 일 ○ 요일

첫째날

새벽 0시 ~ 아침 6시

※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을 시간은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001	새벽 0시				001	
002	10				002	
003	20				003	
004	30				004	
005	40				005	
006	50				006	
007	1시				007	
008	10				008	
009	20				009	
010	30				010	
011	40				011	
012	50				012	
013	2시				013	
014	10				014	
015	20				015	
016	30				016	
017	40				017	
018	50				018	
019	3시				019	
020	10				020	
021	20				021	
022	30				022	
023	40				023	
024	50				024	
025	4시				025	
026	10				026	
027	20				027	
028	30				028	
029	40				029	
030	50				030	
031	5시				031	
032	10				032	
033	20				033	
034	30				034	
035	40				035	
036	50				036	
	아침 6시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을 시간은 (↓)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아침 6시					(※)
037	10					037
038	20					038
039	30					039
040	40					040
041	50					041
042	7시					042
043	10					043
044	20					044
045	30					045
046	40					046
047	50					047
048	8시					048
049	10					049
050	20					050
051	30					051
052	40					052
053	50					053
054	9시					054
055	10					055
056	20					056
057	30					057
058	40					058
059	50					059
060	10시					060
061	10					061
062	20					062
063	30					063
064	40					064
065	50					065
066	11시					066
067	10					067
068	20					068
069	30					069
070	40					070
071	50					071
072	낮 12시					072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을 시간은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073	12시				(※)
	074	10				073
	075	20				074
	076	30				075
	077	40				076
	078	50				077
	079	1시				078
	080	10				079
	081	20				080
	082	30				081
	083	40				082
	084	50				083
	085	2시				084
	086	10				085
	087	20				086
	088	30				087
	089	40				088
	090	50				089
	091	3시				090
	092	10				091
	093	20				092
	094	30				093
	095	40				094
	096	50				095
	097	4시				096
	098	10				097
	099	20				098
	100	30				099
	101	40				100
	102	50				101
	103	5시				102
	104	10				103
	105	20				104
	106	30				105
	107	40				106
	108	50				107
		저녁 6시				108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을 시간은 (↓)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아침 6시				(※)	
109	10					109
110	20					110
111	30					111
112	40					112
113	50					113
114	7시					114
115	10					115
116	20					116
117	30					117
118	40					118
119	50					119
120	8시					120
121	10					121
122	20					122
123	30					123
124	40					124
125	50					125
126	9시					126
127	10					127
128	20					128
129	30					129
130	40					130
131	50					131
132	10시					132
133	10					133
134	20					134
135	30					135
136	40					136
137	50					137
138	11시					138
139	10					139
140	20					140
141	30					141
142	40					142
143	50					143
144	밤 12시					144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 하루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기입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9월 ○ 일 ○ 요일

둘째날

새벽 0시 ~ 아침 6시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는 시간은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새벽 0시				(※)	
001	10				001	
002	20				002	
003	30				003	
004	40				004	
005	50				005	
006	1시				006	
007	10				007	
008	20				008	
009	30				009	
010	40				010	
011	50				011	
012	2시				012	
013	10				013	
014	20				014	
015	30				015	
016	40				016	
017	50				017	
018	3시				018	
019	10				019	
020	20				020	
021	30				021	
022	40				022	
023	50				023	
024	4시				024	
025	10				025	
026	20				026	
027	30				027	
028	40				028	
029	50				029	
030	5시				030	
031	10				031	
032	20				032	
033	30				033	
034	40				034	
035	50				035	
036	아침 6시				036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을 시간은 (↓)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아침 6시				(※)	
037	10					037
038	20					038
039	30					039
040	40					040
041	50					041
042	7시					042
043	10					043
044	20					044
045	30					045
046	40					046
047	50					047
048	8시					048
049	10					049
050	20					050
051	30					051
052	40					052
053	50					053
054	9시					054
055	10					055
056	20					056
057	30					057
058	40					058
059	50					059
060	10시					060
061	10					061
062	20					062
063	30					063
064	40					064
065	50					065
066	11시					066
067	10					067
068	20					068
069	30					069
070	40					070
071	50					071
072	낮 12시					072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9월 ○ 일 ○ 요일

둘째날

낮 12시 ~ 저녁 6시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을 시간은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073	12시				(※)
	074	10				073
	075	20				074
	076	30				075
	077	40				076
	078	50				077
	079	1시				078
	080	10				079
	081	20				080
	082	30				081
	083	40				082
	084	50				083
	085	2시				084
	086	10				085
	087	20				086
	088	30				087
	089	40				088
	090	50				089
	091	3시				090
	092	10				091
	093	20				092
	094	30				093
	095	40				094
	096	50				095
	097	4시				096
	098	10				097
	099	20				098
	100	30				099
	101	40				100
	102	50				101
	103	5시				102
	104	10				103
	105	20				104
	106	30				105
	107	40				106
	108	50				107
		저녁 6시				108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주행동 ● 주로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해 주세요 (이동한 경우는 이동수단도 기입)	집안에 있을 시간은 (↓)표시해 주세요	동시행동 ● 다른 행동도 동시에 했다면 기입해 주세요		
(※)	저녁 6시				(※)	
109	10					109
110	20					110
111	30					111
112	40					112
113	50					113
114	7시				114	
115	10					115
116	20					116
117	30					117
118	40					118
119	50					119
120	8시				120	
121	10					121
122	20					122
123	30					123
124	40					124
125	50					125
126	9시				126	
127	10					127
128	20					128
129	30					129
130	40					130
131	50					131
132	10시				132	
133	10					133
134	20					134
135	30					135
136	40					136
137	50					137
138	11시				138	
139	10					139
140	20					140
141	30					141
142	40					142
143	50					143
144	밤 12시				144	

(※)표시는 조사담당자 기입란입니다.

☐ 하루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기입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뒷장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성 명	전 화 번 호	지도공무원확인
조사담당자		() -	
지도공무원		() -	

응답하신 본인의 성명과 귀택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전화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재 방문을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전화번호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 계 청 장

